

△ 2001년도 표어 △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자

순복음 Life

제10호

발행일 2001년 12월 16일

발행인 : 한승권

위원장 : 김미진

편집처 : 문서발간위원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중앙교회 ☎ 343-800 충남 당진군 당진읍 채운리 162-1

<http://www.djfgcc.pe.kr>

✉ hagape@netsgo.com

☎ (041) 352-5278, 356-5278, 357-9547(Fax)

<12월의 기도>

감사의 기도

김종숙 권사

뛰던 발걸음 잠시 멈추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프고 괴로울 때 용기를 주시고
괴롭고 외로울 때 소망을 주셨으며
고통을 헤엄치면서도
아주 빠지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준 사람에게 감사하고
나를 공격해 온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를 더 너그러운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때때로 가시를 주셔서 잠든 영혼을 깨워 주셨고
한숨과 눈물도 주셨지만
그것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도 배웠습니다.

날마다 평범한 생활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하는 자세를 주소서.
무엇이 생겨서가 아니라 무엇이 발생하지 않음을 감사하게 하소서.

이처럼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가족 큰 사고 없이 평안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 주위에 착한 분이 많은 것도 감사하고
하루 일을 마치고 편안히 쉴 수 있는 보금자리를 주신
즐거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과
편리한 세월에 태어난 것과
세어도 세어도 끝이 없는 많은 감사를 알게 하소서.



1. 이유식은 빨리 시작해야 한다?

엄마들은 아기에게 어떻게든 잘 먹여서 잘 크게 하려는 욕심 때문에 이유식을 먹일 때에도 너무 일찍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무리하게 아기에게 먹이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아기들의 장은 미성숙해서 엄마 젖이나 분유 이외의 음식을 먹이게 되면 소화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특히 단백질,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는 잘 되지만 지방의 흡수는 감소된다. 점차 성장해서 4~6개월이 되면 성인과 비슷하게 장이 성숙하게 되어 일반 음식을 먹여도 소화 흡수할 수 있으며, 이 시기에는 성장이 빨라서 영양이 많이 필요하므로 젖이나 분유 이외에 이유식을 먹여야 한다. 그러나 이유식을 너무 일찍 1~2개월에 시작하면 충분히 장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먹은 음식을 소화 흡수시키지 못하고 설사나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

2. 트림에 대하여 ...

아기들이 젖을 먹을 때는 빠는 기술이 미숙해서 완전하게 빨지 못하고 공기도 같이 흡입하게 되며, 위장도 미숙해서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 쉽게 토하게 되므로 수유 시에는 트림을 시켜서 이 공기를 빼주어야 한다. 그러나 아기가 다 먹고 난 후에 트림을 시키게 되면 분유와 공기 양이 많아서 먹은 것을 다 토하게 되므로 수유 중간 중간에 트림을 시켜주는 것이 좋다. 아기에게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3~5분 간격으로 트림을 시켜주거나 60~90 cc 정도를 먹을 때마다 시켜주는 것이 좋다.

3. 찬 우유를 먹이면 장이 튼튼해지는가?

의학적 근거가 없는 얘기이며, 오히려 갓 태어난 신생아들은 장의 기능이 성숙되지 않아서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찬 우유를 먹이게 되면 소화, 흡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다. 특히 아이가 설사할 때 차가운 음식을 먹이면 장의 운동이 항진되어 설사가 심해질 수 있다. 신생아에게 가장 좋은 식품은 모유인데 모유는 항상 일정하게 따뜻한 온도로 유지되기 때문에 분유도 40° 정도의 온도로 또는 손목에 떨어뜨려 따뜻할 정도로 먹이는 것이 좋다.

4. [신생아] 젖은 시간을 맞춰 먹여야 한다?

아기에게 젖을 먹일 때 3시간 간격으로 먹여야 한다는 원칙에 너무 집착하게 되어 아기가 배가 고파 울고 보채도 시계를 보면서 3시간이라는 간격을 지키기 위해 젖을 주지 않고 젖먹이는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아기들이 먹고자 하는 욕구는 아기마다 다르고 아기라 할지라도 생리적으로, 환경 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아기가 먹는 양이나 시간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므로 아기가 먹고자 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먹이는 것이 좋다. 특히 1달 미만의 신생아인 경우에는 아기의 욕구 사항이 아주 불규칙적일 수 있으므로 아기가 원할 때마다 자주 먹이는 것이 좋으며, 그 이후에는 너무 무질서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서 먹이는 것이 좋다. 모유를 먹이는 경우에는 아기에게 젖을 물릴수록 젖이 잘 나오기 때문에 젖을 자주 먹이는 것이 좋다

<다음 호에 계속>

알뜰살뜰 “아나바다”

물품제공 : 허선영 권철

- | | |
|-------------------------------------|-----------|
| 1. 주황색 플라포리스 잠바 : 사이즈는 66에서 77사이. | 가격 2,500원 |
| 2. 검정색 맨투맨티 : 사이즈 66에서 77사이 . 겨울용임. | 가격 700원 |
| 3. 연두야광빛 브이넥 니트티 : 사이즈 66에서 77사이. | 가격 700원 |

『성도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세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 중에 인생과 깊은 관련이 있는 3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성공의 기회는 3번 온다”, “인생은 때를 잘 잡아야 한다”, “잘 한 선택은 평생 간다”.

때, 기회, 선택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매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할 때,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할 때, 사도들이 성령을 받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 때를 분별 못하고 놓치면 낭패를 당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룟유다가 회개의 때를 놓친 것, 부자 청년이 재물에 붙잡혀 구원을 놓친 것, 예수님 좌편에 있던 강도가 구원을 놓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구원의 때, 은혜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떻게 해야 할 때인지 잘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험하고 어려운 때입니다. 내 힘으로는 건디기 어렵고 이기기 힘든 때입니다. 소용돌이처럼 말려 들어가는 아주 위험한 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매우 잘하는 것이며, 그러기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2. 세상과 구별하며 살아야 할 때입니다.

작금의 세상은 혼돈과 유혹, 그리고 사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기가 쉬운 때입니다. 비신앙이 신앙인 것처럼, 심판이 축복인 것처럼, 죽음이 생명인 것처럼 느껴지고 혼란스럽게 다가오고 있는 때입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세상과 구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없이 사는 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 것이며, 마침내 소돔의 멸망같이 그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3.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하나님께 받고만 살았습니다. 생명, 가정, 햇빛, 비, 물질, 돈, 건강, 환경 등 많은 것들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받은 것으로 우리는 행복을 만들고 있습니다.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도 또 가지려고 하기에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으며, 불감증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다이어트를 해야 할 때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때입니다.



4. 신앙 일선에 나서 땀 흘려 일할 때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쉬고 있습니다. 남들이 해 놓은 환경과 조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있겠지만 이것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올바르게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언제까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살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운 일이며 책망 받을 일입니다.

이제는 신앙 일선에 나서 땀을 흘려야 할 때입니다. 서로 힘을 합하여 일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5.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복 받는다는 것을 보여줄 때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여주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믿지도 않고 우리 신앙의 대상이 귀신도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형상도 아닙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그 인생을 행복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차게 되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의 삶이 변화되고 은혜롭고 복 받았음을 세상에 보여줄 때입니다.

<결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때를 발견했습니다. 이 때는 다시 잡을 수 없는 때 일수도 있고 내게는 허락지 않을 수도 있는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펼쳐진 때를 잘 분별하여야 합니다.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 국내의 사회와 경제적 상황, 내 가정의 위기적 상황, 나 자신이 처한 상황 등을 잘 파악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악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복주시기 위한 때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바로 그 때입니다. 이 때를 놓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주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며, 신앙으로 전진해 나가는 영적 힘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입 주위가 헝고 짓무른다면

입술이 갈라지고 허영게 짓물러서 짜거나 매운 것을 먹으면 쓰라린 다거나 얼굴의 여기저기에 여드름 비슷한 것이 난다면 혹시 소화기관이 나빠서 일어나는 증세가 아닌지 우려하게 된다. 이것은 비타민 B2 부족일 때 많이 일어나는 증세이다. 이럴 때는 우유, 달걀, 신선한 채소를 많이 먹도록 한다.

♣ 귀 울음이 날 때

귀 울음이 계속 된다면 빈번하게 일어날 경우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손가락이 뒷머리로 가도록 하여 양손의 손바닥으로 두 귀를 막고 집게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으로 뒷머리를 톡톡 두드리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마치 큰북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데 이것을 20-30회 정도 반복하다 보면 귀 울음이 깨끗이 사라질 것이다.

♣ 기침을 멎게 하려면

기침이 계속해서 나올 때는 억지로라도 참아서 버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의 흰 부분을 길이 5cm로 잘라서 형겅에 싸서 코에 가까이 대고 호흡하면 기침이 멎는다. 또 대추씨에 약간의 감초를 넣고 서서히 달여 1일 2회씩 3일 정도 마시면 효과가 있다. 기침이 계속해서 나올 때는 집게손가락으로 귓바퀴아래를 힘주어 눌러 본다. 귓바퀴를 힘껏 누르면 그 아픔 때문에 기침을 일으키는 신경이 자극을 받아 기침이 줄게 된다.

♣ 코가 막힐 때는 쑥을

코감기에 걸리면 우선 코가 막히는 것이 갑갑하다. 이럴 때 코를 시원하게 트이게 해주려면 쑥을 가볍게 비벼서 콧구멍에 잠깐기우면 거짓말같이 막혔던 코가 툭 트인다. 특히 아이들이 감기에 걸려 코가 막히면 호흡곤란까지 일으킬 수 있으니 이 방법을 사용하면 아주 좋을 것이다.

♣ 못이나 바늘에 찔렸을 경우

못이나 바늘에 찔렸을 때는 우선 그 자리를 방망이로 두드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응급처치가 된다. 두들길 때는 침에 묻어 들어간 독기가 완전히 밖으로 스며 나올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데 대개는 두들겨서 통증을 느끼지 않을 정도면 안심할 수 있고 상처에 옥시풀이나 요오드링크를 발라두면 안전하다

- 지혜로운 삶의 비결을 알려 드립니다 -

1. 사람들에게 먼저 말하라 - 모든 사람, 특히 당신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라. 유쾌한 인사의 말만큼 멋진 것은 없다.
2.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으라 - 미소는 가장 값비싼 자산 중의 하나이다. 웃는데는 돈이 안든다.
3.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라 - 어떤 사람의 귀에겐 가장 달콤하게 들리는 음악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이다.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거든 먼저 당신 자신을 소개하라.
4. 친절하고 도움을 주는 태도를 취하라 - 친구를 원한다면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우라. 사람들은 모두 친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5. 진실하라 -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당신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 일임을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말하고 행동하라.
6. 사람들에게 순수한 관심을 가지라 - 모든 사람을 좋아하려고 애써 보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당신을 좋아할 것이다.
7.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행동하라 - 의견의 충돌이 벌어지는 데에는 보통 세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그것은 당신, 상대방, 그리고 옳은 사람이다. 이 세국면 모두를 보려고 노력하라.
8. 섬기는 일을 빈틈없이 하라 - 남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다. 자기 자신을 주려고 노력하라. 이는 즐거운 일이다.

♣ 이 달의 추천 신앙서적

책명 : 습관적 신앙에서 벗어나라
저자 : 에이든 토저
역자 : 이태복
정가 : 8,700원



습관적 상태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습관적 상태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탈출해야 한다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습관적 상태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는 자신이 잘 알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응답도 받지 못하거나,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 모호한 나머지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습관적 상태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습관적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진보하지 못하고 아직 몇 달 전이나 그 상태 그대로 있다면, 만일 여러분이 마음을 폭 놓고 어디에 정착해서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갈등을 느끼지 않으며 현재의 영적 상태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습관적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로서 그리고 개인으로서 우리가 습관적 상태에서 벗어나고 앞으로 계속 전진하여 좀더 나은 영적 삶을 사는 일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 이유는 그것에 관해 무엇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일에 가지는 관심은 얼마 있지 않아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성경과학

● 눈 ●



구름의 온도가 빙점 이하로 내려가면 구름 속의 수증기는 결정화되어 눈이 된다. 구름과 지표 사이의 온도가 빙점보다 훨씬 높으면 눈은 녹아서 비가 되어 떨어진다. 눈은 수증기 상태에서 직접 얻 것인데 반해 진눈깨비는 비가 얻 것이므로 눈과 진눈깨비는 서로 구별되어야 한다.

눈의 결정에 나타난 정교한 무늬만큼 자연에서 하나님께의 솜씨를 잘 보여주는 것도 없다. 실험적 증거에 의하면 물이 얼 때는 얼음 결정의 원자가 육각형의 무늬로 서로 연결된다. 눈의 결정도 이와 같이 일정한 육각형의 무늬를 보여준다. 그러나 배움이 큰 학대경으로 하루 종일 조사한다 해도 수많은 눈의 결정 중에서 정확히 똑같은 결정은 찾아 볼 수 없다. 진실로 이런 정교한 무늬야말로 눈이 설계자에 의해 설계된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성경에서 눈은 이사야 1장 18절과 시편 51편 7절에 언급되었는데 신자의 성경과 의로움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었다. “우승조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시편 51편 7절).

또한 우박이나 눈은 심판하는 하신데 사용되었다. 어떤 때는 우박과 눈이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기도 했다. 나폴레옹도 눈으로 인해 패전했다.

“네가 눈 공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노라”(욥기 38장 22~23절)

개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계승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한 지도자였다. 그의 이름 <יושׁע>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원래 그의 이름은 '호세아' 였는데(참조, 민 13:8) 모세가 '여호수아' 라는 이름으로 칭하였다.

1. 시대 배경과 출생 과정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눈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압제 아래 있을 때에 한 노예로서 태어났다. 성경에는 여호수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성장에 대한 일체 언급이 없기에 그에 대해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 밑에서 신실하게 신앙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음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애굽의 학정 속에 있는 민족적인 암흑기에 태어나 젊은 시절을 애굽의 노예로 보냈으나,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여 끝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축복을 받게된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다.

2. 여호수아의 생애

여호수아는 태어나자마자 노예로서의 비참한 삶을 영위하였다. 그 후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면서, 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이 되어 백성들에게 군사 훈련을 시키게 되었다. 그는 특별히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빛나는 공적을 세우고(참조, 출 17:8-16), 모세의 수종자가 되어 모세를 여러 가지로 섬기는 축복된 특권을 소유하게 된다. 그 후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12명 중의 한 사람으로 선택되어 가나안을 정탐한 후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과는 달리 갈렙과

함께 여호와와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는 보고를 통해 백성들을 격려하였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받게 된다(참조, 민 14:30).

여호수아는 여호와와의 명령에 의해 온 백성들이 지켜 보는 가운데 모세의 사역을 완수할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을 받게 된다(참조, 민 27:21-23절).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 점령한 후 여호와와의 명대로 12지파에게 약속의 땅을 분깃으로 나누어 주었다. 그는 110세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권고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지켜갈 것을 당부한 후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기업 경내인 딘넛 세라에 장사되었다(참조, 수 24:19-31).

3. 여호수아의 성품과 신앙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섬겼던 믿음의 종이었다. 그는 믿음으로 요단 강을 건넌으며,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도 하였다. 그의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데서 기인한 것이다. 그는 가나안을 정복할 때는 치밀하면서 빈틈없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 유능한 지도자였으며,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한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교활한 기브온 원주민과의 조약을 성급히 체결하는 실수와 함께 자신의 후계자를 키우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남겨 주고 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죽을 때까지 오직 일편단심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한 신실한 종이었다(참조, 수 24:15).



윤희자 전도사



샬롬!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풍성한 오곡백과를 거둬들여 풍족함을 누린다는 계절입니다.

그 동안 잘 지내고 계시지요?

저는 친정이 전라도라 여행 삼아 다녀옵니다.

창 밖으로 길가를 쳐다보면 코스모스가 흐드러지게 있어 있는 모습이

자신의 날씬한 자태를 보란 듯이 뽐내고 있습니다.

들녘은 그야말로 황금색으로 눈이 부시더군요. "한 가위만 갈아라" 라는 말이 절로 생각나게 하는 여행이었습니다.

자매님!

몇 일전 저는 너무도 선명한 무지개를 오랜만에 보았습니다. 순간 어릴적 동심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 때의 넉넉한 사랑의 나눔이 그리워졌습니다.

달나라에서는 계수나무 밑에서 토끼가 정말로 방아를 찧는 줄 알았고, 무지개를 타면 하늘 저 너머로 갈 수도 있는 줄 알았습니다.

보름이면 장독대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쌀밥을 소복이 담아 놓았던 그런 인심이 그립습니다.

많지는 않은 나이지만 지금의 제가 보고 있는 세상은 우리네 어릴 적 모습과는 많이 변해 있지요.

우리의 아이들을 곧고 바르게 양육하며, 정의를 사랑하기를 가르치지만 의욕만으로는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사실 나 자신도 때로는 힘들어하며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세 힘을 주시고 용기와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지요.

사랑하는 경화 자매님!

하나님은 자매님의 가정과 자매님의 삶 속에 진실되게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인도하며 복 주시기를 원하지요.

때론 교회를 향한 첫 발 내 딛기를 두려워하는 모습이 늘 안타깝습니다.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닌데 언제나 첫 발이 망설여지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자매님이 한 발을 들면 그 발이 디딜 자라를 마려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 자리가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축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시지요?

어머님의 기도와 자매님을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저 또한 이 새벽에 기도드립니다.

다혜와 건하가 이제는 엄마의 기도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받고 줄 수 있는 건강한 자녀로 자라주고, 그래서 부모의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매님의 기도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사업을 형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자매님!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고 풍성한 믿음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며, 모든 가족이 나란히 예배드리는 모습을 속히 볼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찬바람 부는 계절에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 자매님을 늘 생각하며 영혼을 보듬어 드리고 싶은 전도사가 -

여러분이 이 글을 보고 난 후에 바로 일어나서 책상을 닦으시든지, 설거지를 하실 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 글을 옆에 두고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길 수도 있겠지요. 또, 이 글을 주변의 친구들에게 전해 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물론 저는 마지막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어 줄지 또 누가 알겠습니까?

몇 해 전 저는 고흥이란 곳에서 한 동창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는 그 친구가 부인과 사별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 친구가 이야길 해주더군요.
부인의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실크스카프 한 장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건 그들이 뉴욕을 여행하던 중에 유명 브랜드 점에서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고상하고 아름답고, 또 매우 비싼 스카프여서 그렇게 애지중지 하고 차마 쓰지를 못한 채 아주 특별한 날만을 기다렸답니다.
친구는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고 말을 멈추었습니다.
저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친구가 말하더군요.

**"절대로 소중한 것을 아끼고 두었다가 특별한 날에 쓰려고 하지마.
네가 살아 있는 매일 매일이 특별한 날이야."**

그 날 이후 그 이야기를 생각 할 때마다 주변의 일을 놓아 둔 채 소설을 한 권 꺼내어 들고 음악을 틀어 놓고 소파에 누워 나만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창가에 쌓인 먼지만 쳐다 보는 것이 아니라 강가의 풍경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집에서 밥을 하건 말건 부인을 끌고 나가 외식을 했습니다.

생활은 우리의 소중한 경험이지 지나간 날들의 후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아는 분에게 들려주었고 나중엔 다시 뵈었을 때 그분의 생활이 더 이상 예전 같지는 않다고 하시더군요.
아름다운 도자기 잔들이 창식장안에서 식탁 위로 올라 왔답니다.
나중에 아주 특별할 때 쓰려고 했던 것인데, 그 날이 오지 않는 다는 것을 아셨답니다.
'앞으로' '언젠가' ... 더 이상 제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즐거운 일이 생기거나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 바로 그때가 좋은 것이지요.
우리는 종종 옛 친구들과 만나려 할 때 '다음 기회에'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다 큰 아이들을 만나 주려고만 하고 기회를 주려 할 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부부간에 편지 한 통이라도 써서 정을 표시하거나 고마움을 표시하려고 하다가도 시간이 없어서... 라고 말하게 됩니다.

**사실, 매일 아침 우리가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이 바로 특별한 날이다 라고 스스로 말해야 합니다.
매일, 매시간 모두 그렇게 소중한 것들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춤을 출 때에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춤을 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사랑해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춤추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구역장 일기...

사랑구역 김미진 집사

나뭇잎은 벌써 낙엽이 되었고 오고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관심거리는 집중됩니다. 과연 내년도 기관장은 누가 될 것이며 또 새로운 구역장은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자신은 어느 구역에 편성될 것인가! 하는 것이 최대한의 이야기 거리가 되지요.



뒤돌아보니 벌써 구역장을 시작한지 5년이 흘렀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신앙도 어린 내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김순미 집사님을 구역장으로 모시고 구역 활동을 하면서 나중에 내가 구역장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사모님과 대화중 "나중에 구역장이 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하나님께서 나의 그 열정을 보신 모양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역장을 시작하였고 그때 27살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말씀도 없고 신앙심도 어린 나는 너무 난감하기만 했지요. 구역원이라야 나보다 더 나이도 많으시고 신앙심도 깊으시고...도무지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좋을지 몰랐답니다. 혹시 건방져 보이지는 않을까 걱정이고 내가 너무 말씀이 없어서 혹이나 말씀을 잘못 전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많았습니다. 비록 적은 인원이 모인 무리지만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두렵기도 했습니다. 많은 염려와 긴장에도 실수하는 부분이 많았고 알게 모르게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내색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잘한다고 칭찬하시며 용기를 불러 넣어 주시던 강난순 권사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 권사님의 칭찬과 위로와 협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처음 주님 만난 감격과 감동을 다시 느끼며 주신 사명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했지요.

그렇게 2년.....3년이 지나고.... 이제는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버겁다는 생각이었고, 편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철없는 나는 감히 이제는 구역장을 내려놓겠노라고 말씀드리고 4년째 되던 해에 슬그머니 물러났습니다. 사모님의 많은 권면과 걱정을 뒤로하고 내 뜻을 결국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던 일을 놓으면 신앙이 약해지고 많이 힘들어 질 거라는 그 권면을 비웃듯 지나치고 맞이한 나의 새로운 1년은 그야말로 타락의 늪이라고 할까요!! 구역장직을 놓고 난 그 1년에 공돌여 쌓아 올린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양심에 찔림 없이 세상과 타협하고 이기적으로 변해 갔으며 입술에서는 불평이 왜 이리 튀어나오는지.....그 시간동안 나는 성도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기만 하며 점점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곤 하였지요. 너무나 길고 암울한 한해가 그렇게 저물어 갔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새로이 시작한 구역장의 사명은 서서히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늪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내게 있어서는 새로이 도약하는 한해였습니다. 감히 신앙으로는 견줄 수조차 없는 교회의 어른이신 최 정희, 최 순환 권사님과의 한해는 정말 주님이 주신 또 한번의 기회였지요. 믿어주시고 당겨주시고....넘어지지 않게 세워주시고....때로는 엄마처럼 다정하게 이끌어 주시면서도 구역장이라고 섬겨주시는 어르신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인생을 배우는 아주 유익한 생활들이었습니다. 이제 한달이 조금 넘게 남았네요. 과연 내년에는 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서 있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지난 금요일 사랑구역이 심방을 받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권면을 기억하여 정말 나 자신을 절제시키고 마음에 악을 뽑아 더욱 성숙하고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성장 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주변 모든 이들에게 기쁨 주는 모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겠지요!

끝으로 올해 저와 함께 하신 사랑구역 식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려요... 두 분 권사님께 진심으로 많이 감사드리구요.. 묵묵히 지켜 봐 주시며 후원해 주신 홍 집사님.. 그리고 조금의 불평도 없이 순종하며 따라와 준 이 명란 자매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할렐루야!!



이 글을 쓰려고 펜을 든 순간 나의 입가에는 비시시 웃음이 맵습니다. 복음을 전해 들은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교회 출석하여 수요일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하였고 성령의 체험이 없는 나에게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인간적인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에 가로막혀 다가설 수 없었습니다. 교회를 가는 동안 세월은 흘러 봄이 여름이 되고 여름이 가을이 되어 들녘은 황금물결로 출렁거리며 모든 사람들의 마음조차 넉넉하며 풍요로울 때, 그때 내 인생엔 하늘이 무너지고 온 세상이 어두움에 질게 깔리는 듯한 시련이 닥쳤습니다. 그저 평범하고 단란하게 살고자 하던 나의 소망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식간에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나는 울며 몇 날 몇 일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빠 뽀뽀 타고 하늘나라 갔으니까 울지 마. 엄마 울면 나 할머니한테 간다!" 라며 어린 딸은 위로하고 위협하며 나의 힘이 되며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울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신앙을 의지하자. 신앙에 매달리자. 내가 살 수 있는 길.....내가 살아 갈 길은 그것뿐이다'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도 살 자신도 없었습니다.

교회를 한 달에 한번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내게 어디에서 그런 생각이 나왔는지 나도 알 수 없지만 목사님과의 상담 후 예배에 출석하며 나는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찬양을 할 때에도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같고 나를 위한 찬양 같아 두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내 서러움 때문이었을까요! 주님께 사랑하심을 감지해서였을까요!

이성적이며 계산적이던 내 마음은 서서히 주님을 향해 마음에 문을 조금씩 조금씩 열어 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눈을 뜰 때 겁 많은 나는 밤마다 무서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살던 집을 떠나 이사한 곳은 상가 건물 2층... 낮에는 학원이었기에 사람이 제법 많이 있었지만 밤이면 옆집이 자주 비워 어린 딸과 120평 건물에 둘만 달랑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잠을 자려고 눈만 감으면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여인이 서 있는 모습이 보여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어 밤마다 찬양을 틀어 놓고 어린 딸을 끌어안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매일 밤마다 이어지는 공포에 순간은 정말이지 견디기 힘들게 고통스러웠습니다. 황량한 별판 같은 상가 건물...그 곳을 처음 보는 순간 그 어느 집보다 맘에 들어 이사했는데 내 담력을 연단 받는 장소로 사용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 가운데서 더욱 더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주보를 통해 기재된 결산 특별 새벽기도를 보는 순간 나의 심장은 뛰었습니다. 나도 참석해야겠다 라는 의사가 구역장님을 통해 목사님께 전달되었고 나의 새벽기도는 출발되었습니다. 합덕에서 당진으로 새벽예배를 다닌다는 것.....그것은 성도를 사랑하시는 목사님의 신앙 욕심과 열정이 아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목사님께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벽마다 목사님은 합덕까지 오셨고 어린 딸을 등에 업고 나는 신앙의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곤히 자는 딸을 깨우려면 때론 눈물이 앞을 가리웠습니다. "하나야..일어나.."라는 소리에 단 한번도 울지도 투정부리지도 않고 눈을 부비며 일어나는 딸...하나님은 나의 신앙 생활에 최상의 파트너였습니다. 일주일간에 특별새벽예배는 나의 삶에도 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세상과 찢하며 살았던 시간과의 결산. 어린 딸과 나를 남겨두고 떠나버린 남편에 대한 용서에 대한 결산을 하였습니다.

나의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변해갈 때 나는 가슴앓이를 해야 했습니다. 어느 누구를 지독히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없어 두려움까지 생기듯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주의 사랑이 감당하기 어려워 주체 할 수 없을 정도로 내게 밀려올 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떨림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슴 벅차게 밀려올 때 설 새 없이 나의 입술은 주님을 자랑하며 교회를 자랑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온실의 화초보다 때로는 사나운 바람과 강렬한 태양열과 세찬 비바람 가운데서 화초가 더 튼튼하며 단단하게 자라듯 합덕에서의 신앙생활은 나의 신앙의 초석을 다지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보기

엔 초라하고 보잘 것 없는 공간이었지만 하나님은 나의 눈을 가리워 그곳으로 옮기시어 외로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성전을 가까이에서 섬기며 오고 갈 수 있도록 당진으로 보금자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이사 오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높여 주셨고 세워 주셨습니다.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며 채워 주시는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도 해를 거듭해 2년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분께 감사하고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 가운데서도 너그럽게 이해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처음 다짐하였던 것처럼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성장하길 소망하며 오늘도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함께 웃음을

☞ 여자도 빵커뀌고 싶다!!!-_-;;

한 커플이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런데 여자가 갑자기 빵커가 꺾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여자는 한참 고민을 하다가 남자에게 ''사랑해~!''라고 크게 외치며

그 순간을 이용해 빵커를 꺾기로 결심했다.

여자는 자기가 생각해드 너무 기발한 아이디어라며 속으로 자화자찬하고 있었다.

드디어 여자는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남자에게 꼭 안기며 ''사랑해~~~!''라고

외치며 빵커를 뽕~꺾었다.

여자가 성공이다 라고 생각한 순간.... 그때 남자가 하는 말.....

''뭐라고? 빵커소리 때문에 못 들었어.''

☞ 재미난 퀴즈...

머리카락이 한 올밖에 없는 대머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잘 간수하느라고 힘들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대머리가 남은 머리카락을 웅감하게 확 뽑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답: 이발비가 올라서

☞ 63빌딩

지렁이가 63빌딩 위에서 가래침을 뱉었다.

길가다 가래침을 맞은 사오정이 위를 올려다 보면서 당장 내려오라고 소리 질렀다.

지렁이가 63년이 걸려 63빌딩을 내려오자,

사오정 왈,

“옥상으로 따라 왔!”

이 달의 새신자 소개

조상길 성도님

아내 되는 장명희 권찰님의 인도로 교회에 오신 조상길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이젠 세상의 옷을 벗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고자 다짐하는 조상길 성도님은 언제나 웃음이 있고 마음이 여유로우며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가지신 분입니다. 앞으로 많은 성도들과 잘 어우러지고 협력하여 더욱더 신실한 믿음으로 잘했다 칭찬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수진 자매님

원재옥 집사님의 인도로 첫 신앙을 본 교회에서 시작하게 되었으며 신성전문대 정보산업과 1학년에 재학중입니다. 생활이 검소하고 착실한 수진 청년은 leebook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밀알 청년회에 재목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장식 형제님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장식 청년은 최성재 권찰님의 인도로 우리 교회에 오셨구요...앞으로 적극적이고 활기찬 모습으로 밀알 청년회에 아름다운 청지기의 모습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행시

==> 크리스마스 <==

권찰 송미정

크...크나큰 일이 벌어졌어요
리...리(이)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스...스스럼없이
마...마음껏 웃으며 아기예수 탄생하심을
축하드리자구요
스...스무 번씩 스무 번 축하해도 부족합니다

==> 기관총회 <==

성도 이종희

기...기술 좋은 사람도 좋구
관...관우같이 담대한 사람도 너무 좋구
총...총명하기 이를 데 없는 똑똑한 머리의
사람두 참 좋지만 ,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회...회비 잘 내는 사람!

사탄의 새로운 옷, 뉴-에이지운동

(NEW DRESS OF SATAN, NEW-AGE MOVEMENT)

"그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엡2:2)

7. 뉴에이지운동과 스포츠(올림픽)

올림픽의 기원은 B.C.776년 고대 그리스의 유명도시인 엘리스의 왕이 제우스신과 올림피아 산신들에게 성대한 제사를 드리면서 그리이스의 젊은이들을 모아 운동경기를 갖게 되었는데, 올림피아 신에게 바치는 경기라 하여 '올림픽'이라 불렀다고 한다.

이 '올림픽대회'는 4년마다 한 번씩 열렸으며, 경기종목은 단거리경주(약200m)뿐이었으나, 열릴 때마다 점점 늘어 권투, 레슬링 등 26종목까지 늘었다. 경기의 우승자에게는 월계수 잎으로 만든 월계관을 씌워주고 명예와 상금(돈)을 주었다.

그러나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하자, 로마황제 데오도시우스1세는 종교상의 이유로(?)로 '올림픽대회'를 중단 시켰다. 이로써 고대 올림픽은 A.D.393년, 293회로 그 막을 내리게 된 것이었다.

지금의 올림픽은 '근대올림픽'이라 부르는데, 프랑스 뽀에르드 쿠베르탱 남작에 의하여 부활되었다. 그는 프랑스 젊은이들의 사기진작과 세계 젊은이들과의 친선 및 우호를 다지고 더 나아가 전쟁 없는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올림픽대회'의 개최를 세계에 공포하게 되었다.

드디어 1894년 6월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회의를 열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창설하였으며, 1896년 올림피아 제전(際典)의 발생지인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제1회 근대 올림픽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로부터 100년후, 4년마다 한 번 씩 개최된 올림픽대회는 1996년 7월 19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시에서 100주년 기념대회를 맞게 됐다. 애틀랜타 올림픽 대회에는 I.O.C.회원국 197개국들의 전원참석으로 선수단, 임원진, 관광객 등 200만 명이 모이는 사상최대의 축제라고 시작 전부터 들떠있었다. 우리 나라도 사상최대 규모인 427명의 선수단을 파견했다고 한다.

'올림픽 성화(聖火)'는 애틀랜타 올림픽이 시작되기 4개월 전인 3월 29일 그리스 올림피아 신전에서 성화 리허설을 갖고 그리이스 각 도시를 순회한 후, 15,000마일을 달려 7월 19일 애틀랜타 주경기장에 도착했다.

'올림픽'은 올림피아 산신(山神)들에게 젊은이들이 충성을 다짐하는 경기대회이다. 세계의 모든 정치, 종교, 권력도 '올림픽 신(神)' 앞에 무릎을 꿇고 충성을 다짐하고, 그에게 명예와 부(富)를 구하기도 한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수의 젊은이들이 '성령불'대신 '귀신의 불'을 들고, '천국 면류관'을 얻기보다 귀신이 주는 '금메달' 하나 얻기 위해 생명 바쳐 뛰고 있음을 아는가! '올림픽'에 열광(熱狂)하는 작은 예수들의 모습을 보고 슬피 탄식하시는 주님의 고독한 눈물을 보라!

'올림픽'보다 '예수'에 더 열광(熱狂)할 수는 없을까? 사탄은 어느새 또 다른 옷을 입고 우리 곁에 다정히 앉아있다. '올림픽'과 '월드컵'은 그의 많은 옷 중에서 그가 제일 자랑하는 자주빛 드레스(계 17:4)이다.

당진→왜목마을로 가는 지방도 615호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왜목마을(충남 당진군 석문면 교로리) 안내판에 쓰인 문구다. 안내판에는 이 문구와 함께 용무치와 국화도의 바다와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뜨는 해가 인쇄돼 있다. 수평선으로 뜨고 지는 해를 한 곳에 볼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왜목마을의 매력은 '서해 일출'의 독특함, 서울에서 자동차로 3시간 거리(135㎞)의 근접성, 그리고 포구마을의 풋풋한 분위기가 있다.



▼왜목마을 일출▼

왜목마을 포구가 명소. 서해 바다위로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는 것은 왜목마을의 지리적인 특성 때문. 동해의 포구 앞으로 서해바다가 펼쳐지는 지형 덕분에 해가 서해 수평선 위로 뜨는 것이다. 포구 앞 국화도, 장고항의 용무치(해안의 높은 둔덕)로 떠오를 때는 더욱 운치가 있다. 왜목마을이 동쪽으로 수평선을 이룰 만큼 내륙 지역과 떨어져 있기 때문. 정확히 동해에서 해가 뜬 뒤 5분 만에 일어나는 일출이다. 왜목마을 석문산 79m의 정상에 오르면 장고항 용무치~경기도 화성군 국화도를 사이에 두고 시기별로 위치가 바뀌면서 일출과 월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해의 일출은 장엄하고 화려하다면 서해 왜목마을 일출은 한순간 바다가 짙은 황토 빛으로 바다를 가로지르는 물기둥을 만든다.

▼왜목마을 낙조▼

일몰은 당진군 석문면 대난지도와 소난지도 사이의 비경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목마을 부근의 대호방조제에서 즐길 수 있다. 그중에서도 으뜸은 당진화력발전소내 해안가 언덕위 석문각이다. 석문각은 발전소측이 흙을 돌워 만든 언덕에 세운 8각정자. 언덕 아래 왼편→오른편으로 소, 대난지도와 풍도 육도 입화도가 한눈에 들어온다. 난지도 너머 수평선 아래로 사라지는 해, 주변 바다를 수놓은 섬과 바다와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석양, 바다를 한가로이 지나가는 작은 고깃배... 석문각이 발전소안에 있어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게 아쉽다.

<가는길>

왜목마을까지 당진 읍내에서 석문 방향의 지방 도로 615번을 타고 당진화력발전소 이정표를 따라가면 된다. 당진읍에서 25분 정도 소요된다. 발전소 전방 500m쯤 동인장 여관이 보이는데, 그곳에서 우회전을 하면 왜목마을로 들어갈 수 있다. 동인장여관 앞에 해 뜨는 왜목마을이라는 이정표가 있으니 주의해서 보면 지나칠 염려가 없다.



대중교통

서울 강남 서초터미널에서 수시(10분 간격) 당진간 고속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소요시간은 약 2시간20분 대전은 동부터미널에서 2시간 소요된다.

당진시외버스터미널 - 당진 버스터미널에서 교로리행 시내버스가 30분 간격으로 운행(30분소요)

<닭칼국수>

재료 - 밀가루 7컵, 달걀가루 1컵, 닭 반마리, 파 반뿌리, 생강 1쪽, 호박 1개, 소금, 식용유 적당량씩, 양념 (국간장 6큰술, 파 1뿌리, 마늘 5쪽, 붉은 고추 2개, 풋고추 2개, 고춧가루 2작은술, 깨소금 1큰술, 참기름 1큰술)

<조리법>

1. 닭은 깨끗이 씻어서 냄비에 물을 넉넉하게 붓고 무르게 삶는다. 삶는 도중에 통파와 생강을 넣고 끓이면 닭의 냄새를 없앨 수 있다.
2. 밀가루와 콩가루를 7:1의 비율로 섞고 소금을 넣어 반죽한 다음 마르지 않도록 젖은 헝겊으로 싸둔다.
3. 양념용으로 쓸 파와 마늘은 깨끗이 손질하여 곱게 다지고, 풋고추와 붉은 고추는 씨를 털어 내고 잘게 썰다.
4. 국간장에 다진 파, 마늘, 붉은 고추, 풋고추와 고춧가루, 깨소금, 참기름을 넣어 양념장을 만든다.
5. 호박은 채썰어 소금에 절였다가 꼭 짰 후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볶아낸다. 볶을 때 다진 파, 마늘, 깨소금, 참기름을 넣어 양념한다.
6. 닭이 무르게 삶아지면 건져서 뼈는 추려내고 닭살은 찢어서 양념장을 약간 넣고 무쳐 놓는다. 닭 국물은 체에 거른 후 적당량의 물을 섞어 다시 끓인다.
7. 반죽은 밀대로 밀어 여러 번 접은 다음 약간 굵게 채 썰어 밀가루를 뿌린 쟁반에 훌훌 털어 흔트려 둔다.
8. 장국에 국수를 넣고 끓인 다음 그릇에 담고, 호박 나물과 닭살 무침을 얹고 양념장을 끼얹어 낸다.





718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 시편 18:1~2 • 최용덕 곡 —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는 나를 이끌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생명의 목자되시니 내가 따를 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생명의 만류관으로 내게 쉼의 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되돌아오는 2절에서)

찬양으로 받은 은혜

권복순 집사

안녕하세요? 순복음중앙교회의 권복순 집사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참으로 다양한 것 같아요, 그 중 제 삶에 희망을 안겨 준 아름다운 찬양이 있어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이렇게 연필을 들었습니다. 저는 교통사고로 몸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직 한번도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 세상에 마음을 둘 때가 있었고 루트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보듬어 주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내게 너무도 큰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힘들어 연약해질 때마다 이 찬양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를 구원하실 전능하신 분...나의 영원하신 구세주...." 저는 주님이 주시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몸에서 힘이 생깁니다. 우리 모두 어떠한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힘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평안한 삶을 살도록 해요.

◆ 제 9호 퍼즐 정답 ◆

바	룩		벨	리	알		강
누			사				림
엘	르	아	살		엘		
		멘		고	르	반	
		보	아	스			
무	교	병		수		석	청
기			바				지
고	살	자				음	기

우리나라는 불과 10여년 만에 컴퓨터의 대중적 보급에 성공하여 전체인구 4분의 1 이상이 인터넷을 활용하는 세계 6위의 인터넷 강국으로 성장한 건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발전으로 인터넷의 엄청난 정보들을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인터넷 예절은 뒤에서 세는 것이 빠른 만큼 최악의 상황이란 걸 알고 계신가요? 왜 이런 상황으로 우리의 사이버 세상이 왜곡되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자신의 존재를 감출 수 있는 익명성과 상대방을 직접 보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 비대면성이라는 사이버 세상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사이버 세상은 분명 현실과 다른 공간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동떨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현실과 깊게 연관되어 돌아가는 곳이 아닐까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현실세계에서 예절바른 사람은 사이버세상에서도 예절바른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공간의 문제를 푸는 실마리는 결국 현실 공간에 있다는 뜻이 되는 건 아닐까요? 인터넷을 비롯한 사이버 세상은 인류의 과학 발전이 만들어낸 최고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자 미래 생활을 뒤바꿀 문명의 이기입니다.

실제로 사이버 세상은 여러모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에 적합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 사이버 세상의 성격

누구에게나 평등한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종교인이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도 인터넷에 들어오면 다 같은 네티즌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 받은 신체장애자나 정상인도 인터넷에서는 역시 똑같은 네티즌입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유의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인터넷은 강요에 의해 즐기는 문화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공간입니다. 정치, 경제, 심지어 사회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파시스트, 동성연애자들도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실시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TV나 라디오는 일방적으로 주는 정보를 수신하는 거에 불과했지만 인터넷은 그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베풀고 나누는 상생의 공간입니다. 자유로운 '정보 공유의 마인드'에서 인터넷이 만들어진 것처럼 인터넷을 정보의 바다로 만들어낸 힘은 네티즌의 베풀고 나누는 문화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렇게 유용한 인터넷을 올바르게 이용해나가기 위해 이용자 스스로가 지켜야 할 행동 규범이 바로 네티켓입니다. 네티켓(Netiquette)은 네트워크(NetWork)와 에티켓(Etiquette)이 합성된 말입니다. 네티켓은 네트워크 공간, 사이버 세상에서 네티즌이 지켜야 할 비공식적인 규약입니다. 네티켓에는 법적 제재에 의존하는 타율적 해결방식 보다는 네티즌 스스로 자율적으로 문제를 미리 방지하고 이성적으로 해결해나가는 적극적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네티켓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티켓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입니다. 네티켓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티켓을 지켜야 하는 이유>

1. 인간 존중과 상호배려 - 당신이 존중받는다.

"존중받고 싶은 자 남을 존중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티켓의 핵심 정신은 인간 존중과 상호 배려입니다.

2. 자원의 효과적인 이용-사이버 세상이 더욱 편리해진다.

인터넷 공간에서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정보가 많아질수록 심한 체중을 앓고 효율적인 정보 이용을 방해하게 되겠지요.

3. 화해와 이성의 공간-따뜻한 공간으로 변모시킨다.

서로 네티켓을 지키면 사이버 세상에서 갈등과 대립이 사라진다.

네티켓의 핵심정신인 상호존중의 원칙이 지켜진다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자제하기 때문이다.

4. 사이버 시민공동체의 윤리 교육 - 미래 사회에 적응하는 훈련이다.

다가오는 시대는 사이버 시대다.

산업분야는 물론 생활 문화 전 분야가 사이버 세상에 더욱 의존할 것입니다.

사이버 세상은 국경과 인종, 이념을 뛰어넘는 미래형 시민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네티켓은 사이버 시민공동체 사회의 성원으로서 책임감과 윤리관을 깨닫게 하는 방법입니다.

겨울철 자동차관리 및 운전 요령

날씨가 쌀쌀해져 아침에 이불을 들추고 일어서기가 부담스럽다. 이 때쯤이면 겨울철 차량관리 요령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1. 겨울에는 엔진오일과 변속기오일의 점도가 높아진다. 또 배터리도 추위에 약해 겨울에는 성능이 떨어진다. 자동차 열쇠를 힘차게 돌려도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자동차 배터리는 기동모터 작동음의 크기로 힘의 정도를 판단한다. 만일 소리가 약할 경우 배터리 단자의 오염이나 배선의 문제가 있는지 정밀점검을 받도록 한다. 운전자들은 시동이 안되면 당황해 자동차 시동키를 잇달아 돌린다. 그러나 올바른 시동방법은 15초 정도 간격으로 7~10초 정도로 길게 시동키를 작동시키는 것이다.

2. 눈길에서 자동차를 출발할 때는 아무리 조심해도 바퀴가 미끄러진다.

수동변속기 차량인 경우에는 2단 기어를 사용해 천천히 출발하면 좀 더 안전하다. 자동변속기 차량은 홀드(HOLD)스위치를 켜두면 부드럽게 출발할 수 있다. 눈길에서의 급출발 급제동은 절대금물이며 긴 언덕을 내려갈 경우 저단기어를 이용하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한다. 또 겨울철에는 유리 세정액이 쉽게 결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전용 유리 세정액을 주입하여 얼지 않도록 한다.

3. 과거에는 2년마다 부동액을 바꿔주어야 했다. 그러나 4년 전쯤부터 나온 신차에는 장수명 부동액이 들어 있다. 장수명 부동액은 수명이 5년 10km에 달한다. 장수명 부동액은 수돗물과 절반씩 섞어 사용한다. 부동액을 보충할 때 일반 부동액을 넣으면 성능이 떨어져 수명이 2년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4.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난방장치의 이용이 잦아 먼지가 날리는 경우가 잦다. 따라서 진공청소기로 자주 차량바닥을 청소해야 한다. 요즘 나온 차량은 통풍구 안에 실내 공기필터가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1만 5000km에 교환한다. 또 겨울철에도 2주에 1회 5분간 에어컨을 켜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계부식, 고무제품 경화 현상이 나타나 냉매가 누출된다.

5. 자동차 연료필터에는 이물질이나 수분이 다량 유입되는데 기온이 떨어지면 이것이 얼어붙어 연료공급이 안되고, 시동을 걸기가 어려워진다. 가솔린 차량의 경우는 매 6만km에 연료필터를 교환해 주어야 한다. 디젤 차량은 연료탱크 내외부 온도 차이에 의해 수분이 자연히 생긴다. 가급적 연료를 가득 채운 상태에서 운행하고 연료필터 역시 수시로 교환해야 한다. LPG 차량은 연료특성상 온도가 -15℃ 이하로 떨어지면 연료공급이 원활치 못해 시동이 안 걸린다. 이것을 방지하려면 프로판 함량이 높은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LPG 연료는 프로판의 함량은 지역별 차이가 있다. 추운 날 강원도에 갔다면 반드시 도착지의 LPG 충전소에서 연료를 채운다. 지역조건에 맞는 연료를 사용하면 다음날 시동을 쉽게 걸 수 있다. 또 보온을 위해 가급적 실내 주차장을 이용한다.

6. 실내 주차가 불가능하다면 최대한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곳에, 해 뜨는 방향으로 주차한다. 주행 후 시동을 끌 때는 LPG 스위치를 우선 'OFF'에 놓고 1분 정도 지난 뒤 저절로 시동이 꺼진 다음 자동차 key를 뺀다.

(현대자동차 고객센터 이광표 차장)

겨울철 건강관리 - 아토피염 극성

눈 내리는 겨울은 건조한 계절이기 때문에 아토피 환자에게는 피부 증상이 더 나빠질 수가 있어 반가운 계절이 아닙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유전적 요인이 관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아직도 특별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의사나 환자나 골치를 아파하는 경우를 종종대하게 되지요.

물론 아토피가 있는 아이의 절반 가량은 2~3세 정도가 되면 치료하지 않아도 호전되지만 계속 증상이 남아 있어서 괴로워하는 경우도 간간히 봅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처방 받는 연고는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것이 있으므로 의사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바르는 게 필수적이지요.

스테로이드 연고를 계속해서 장기간 바르는 경우 모발 성장을 촉진 시킬 수 있고 피부 위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면 피부증상이 좋아지지만 증상이 좋아진다고 해서 함부로 자주 바르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연고를 바르는 것을 임의로 중단하면 증상이 나빠지거나 재발하기 쉬우므로 의사가 권하는 시기까지 연고를 계속 바르는 게 좋습니다.

아토피 피부 증상이 있으면 전문의와 상담하고 처방을 받아 치료해야겠지만 보호자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치료되는 병이 아니지만 의사 지시와 보호자 협조로 조절될 수 있으며 그러다 보면 시간이 가면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은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워하는 것을 막는 것이지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집에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누나 세제로 목욕을 자주하면 피부가 건조해 지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적게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 아이 피부에 맞는 보습제를 선택해 규칙적으로 발라주어 피부가 건조해 지고 가려움증이 생기는 것을 막아 주는 게 좋습니다.

셋째, 거칠거나 무거운 옷을 입어서 피부를 자극하게 하는 것을 좋지 않고 가벼운 면옷을 입혀야 합니다.

넷째, 땀나는 것은 가려움증을 유발하고 증상이 심해지게 할 수 있으므로 적당한 습도와 따뜻한 기후가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요.

다섯째, 어떤 특정한 음식물이 아이에게 가려움증을 악화시키는 것이 발견되면 주지 말도록 합니다.

여섯째, 가려워서 긁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아이 손톱을 짧게 깎고 얼굴에 손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김동수 연세대 소아과 교수

자녀 괴롭히는 '異常' 겨울방학 때 고쳐주자

곧 자녀들의 겨울방학. 치료기간이 오래 필요하지만 평소 시간이 없어 고치기 힘들었던 질병을 치료하기 좋은 때다.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병원에 데리고 가야 자녀가 '통학'과 '통원'을 동시에 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다.

▼ 약물치료 원칙...효과 못 보면 내시경수술 필요 ▼

▽ 축농증 - 코막힘 콧물과 함께 코의 통증, 두통, 열, 집중력 장애, 코막힘, 누런 콧물, 만성기침이 주증세. 콧물이 목으로 넘어가거나 목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초기에 감기를 다스리지 못해 악화되는 일이 많다. 어린이 축농증은 약물로 고치는 것이 원칙.

항생제를 위주로 약물치료를 10일~4주 받으면 증상이 나아지거나 사라진다. 약물치료로 효과를 못 보면 내시경수술을 받는다. / 수술비용은 60만~80만원.

▼ 레이저등으로 두터워진 점막조직 없애야 ▼

▽ 비염 - 알레르기성 비염이 오래되면 코 점막이 붓는 비후성비염이 되기 쉽다.

약물로는 잘 낫지 않으므로 레이저 등으로 두터워진 점막 조직을 없애야 한다. 비중격만곡증은 코를 가로막는 벽이 좌우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서 생기는 것.

코막힘 두통 등이 나타나고 만성비염이나 축농증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내시경수술로 휘어진 뼈와 연골을 반듯하게 깎아내야 한다.

수술후 2, 3주간 통원치료를 해야 한다. 수술은 콧빠가 어느 정도 자란 초등학교 졸업 후에 하는 게 좋다. / 수술비는 20만~30만원.

▼ 이빨 표면 불소로 씩우면 충치예방 도움 ▼

▽ 치아 관리 - 요즘은 충치를 예방하는 '치면열구전색' 치료가 유행. 씹기 쉬운 이빨 골짜기 부분을 미리 '실란트'로 메우고 치아 표면을 불소로 씩워 충치가 생길 가능성을 줄인다. 이빨 한 개당 3만원. 충치가 생겨서 이빨을 뺄 경우, 이빨이 빠진 자리를 일시적으로 메워주는 '간격유지장치'를 끼운다. 그래야 치열이 고르게 되서 덧니가 생기지 않는다.

사고로 이빨이 빠졌을 때는 우유나 식염수에 빠진 이빨을 넣어 30분 이내에 치과를 찾으면 다시 끼울 수 있다. / 치료비는 20만원선.

▼ 놀이-게임치료등 부모가 함께 참여해야 ▼

▽ 주의력결핍 행동장애 - 수업태도 때문에 교사에게 자주 지적받거나 한 가지 일에 몰두하지 못하는 자녀는 주의력 결핍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주의력이 떨어져 공부에 대한 흥미가 없어지고 학습장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원인은 충동조절을 담당하는 뇌의 전두엽이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했을 가능성과 무조건 '오냐 오냐'하는 부모 밑에서 자랐을 가능성 등.

놀이치료 게임치료 등에 부모와 함께 참여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치료는 보통 두 달 걸린다. / 비용은 16만~64만원.

▼ 운동-식이요법-습관 개선 등 온 가족이 도와야 ▼

▽ 비만 - 10~13세 비만 어린이는 70%가 비만 어른으로 성장한다.

어린이 비만은 식이요법 운동 습관의 개선으로 고치며 약물요법이나 수술은 하지 않는다.

비만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다이어트를 하는 게 좋다.

아이스크림 햄버거 튀김요리 등을 피하며 요리를 할 때는 버터 대신 마가린, 보통우유 대신 탈지유, 계란은 흰자만 쓰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지나치게 살빼기에 집착할 경우 키가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어린이 다이어트는 체중을 줄이는 게 아니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도록 한다.

▼ 흉터 잘라내고 주위 피부 눌러 덮어 ▼

▽ 흉터제거 - 상처를 깊게 입었는데도 껴매지 않고 약간 바른 경우 흉터가 남기 쉽다.

딱딱하게 튀어나온 흉터는 잘라내고 다시 껴매는 수술을 한다.

실을 제거한 뒤 한 달 동안은 다시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넓은 흉터는 조직확장기를 이용해 주위의 피부를 2, 3개월간 늘린 뒤 흉터를 잘라낸 부위를 덮는 방

법을 쓴다.

최근에 개발된 레이저를 이용한 흉터치료는 시술 후 직사광선에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겨울에 받는 것이 좋다. / 치료비는 1cm당 15만원선.

▼ 레이저로 태우거나 외과수술로 제거 ▼

▽ 점빼기 - 점을 빼는 방법에는 레이저수술과 외과수술이 있다. 레이저수술은 점을 국소마취하고 이산화탄소레이저로 점 조직을 태워 없애는 것.

시술 후 움푹 패인 상처가 생기는데 1주일 동안은 물이 닿지 않게 하고 항생제연고를 발라야 한다. 상처가 낫는데는 4주, 색깔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는 2, 3개월이 걸린다.

/ 비용은 점 하나 당 1~2만원선.

레이저로 없앨 수 없는 큰 점은 외과수술을 하며 비용은 1cm당 10만원정도.

▼ 호르몬요법 쓰면 10cm가량 클 수 있어 ▼

▽ 저신장증 - 자녀의 키가 같은 또래 아이들 100명 중 끝에서 3번째 이내일 때, 1년에 키가 4cm도 자라지 않을 때 저신장증이라고 한다.

갑상선기능이 저하된 경우는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하고, 성장호르몬이 결핍된 경우는 성장호르몬을 투여한다.

두 가지 모두 90% 이상에게서 첫해에 10cm 가량 자라게 하는 효과가 있다.

/ 치료비는 1년에 1000~1500만원. 그러나 유전적인 요인 등 다른 원인으로 키가 크지 않을 때 호르몬치료는 큰 효과가 없다.

성장이 모두 끝나가는 경우에도 효과를 보지 못한다.

▼ 항생제 2주동안 먹거나 바르면 효과 ▼

▽ 질염 - 어린이는 항문과 질이 가깝고 외음부의 피부가 얇아 쉽게 염증이 생기고 잘 낫지 않는 특성이 있다. 치즈덩어리 같은 분비물이 나오거나 질 주변의 피부가 붓고 통증 가려움증이 있는 경우, 소변을 볼 때 화끈거리는 통증이 있을 때는 항생제를 먹거나 바르면 2주정도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예방하려면 되도록 향기없는 비누를 쓰고 용변 뒤에는 질→항문쪽으로 닦는 게 좋다.

/ 치료비는 증상에 따라 2만~10만원선.

(도움말 :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서울대병원 소아과 소아성형외과 치과, 성신여대부설 심리건강연구소, 백명기신경정신과)

잠깐, 이런 일이

짧아진 배터리 수명을 늘리는 방법이 알려졌다.

24시간쯤 냉동실에 얼렸다가 충전하면 새것처럼 성능이 부활된다는 것. 보통 해늘폰 배터리는 6개월 정도 사용하면 수명이 짧아지기 마련이다. 이럴 때 보통은 배터리를 바꾸기를 고려하기도 하나 배터리 가격이 너무 비싼 게 문제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은 배터리 성능 부활방법이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료과 200% 확실하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하루도 쓰기 어렵던 배터리를 이 방법을 써 50시간을 여유롭게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음식을 보관할 때 쓰는 랩이나 1회용 비닐 팩, 또는 봉투로 배터리를 꼼꼼 싸서 냉장과 냉동실에 24시간 정도 얼리면 새것처럼 배터리 기능이 돌아온다는 것.

배터리 기능이 회복되는 것은 즉저온 상태에서 전해물질들이 자기자리로 돌아가려는 간단한 원리 때문이라는 것. 특히 오래된 것일수록 효과가 확실하다고 한다.

그러나 몇 가지 주의할 게 있다. 너무 자주하는 것은 금물이다. 또 냉동 이후 반드시 습기를 제거해야 한다.

1. 크리스마스의 유래

크리스마스"의 날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12월 25일 설은 고대 "로마"에서 지키던 동지날을 채택한데서 비롯됐다. 당시 "로마"의 이교도들은 동지절(12월 24일 - 다음해 1월 6일)을 하나의 대축제적인 명절로 지키고 있었다. 그래서 고대 교회의 "로마" 주교는 기독교가 이교도들을 정복했다는 의미에서 이교의 축제일인 동지를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채택했다. "크리스마스"를 교회가 교리적으로 지키기 시작한 것은 4세기 후반부터이다.

고대 "로마"교회에서 기원한 "크리스마스"를 지키기 시작한 년대에 대해서는 335년설과 354년설이 맞서 있다. "성탄일"은 그 후 동방 교회로 퍼져나가 "콘스탄티노폴리스"(379년), "카파도기아"(382년)등에서 지키기 시작했고 교회력의 기원이 되었으며 현재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시력 기원의 시원이 되었다.

"로마"의 "엑시그누스"(500-544)가 533년 부활절표를 작성할 때 계산한 데서 비롯된 시력기원의 기점인 "그리스도"의 탄생은 실제로는 현재보다 4년이 앞당겨진다.

"성서"에는 예수님의 탄생 년도나 날짜의 기록이 전혀 없다.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정한 최고(最古)의 기록이라는 "안디옥" 주교의 "데오필로스"기록(175-183)도 학자들간에는 위작(僞作)이라고 단정되고 있다.

"그리스도"와 "미사"가 합쳐 구성된 용어인 "크리스마스" 사건에 관한 성서적 근거로는 "마태복음 제 1장"과 "누가복음 제 2장"을 들 수 있다.

성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처녀 탄생은 천사의 고지, 이상한 별의 출현, 베들레헴의 말구유까지, 박사들을 인도한 빛 등은 "그리스도"가 인간이 된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치 바늘과 실의 관계처럼 성탄에 널리 유행하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관습은 고대 "애굽"에서의 동지제(冬至祭) 때의 나뭇가지 장식, "로마" 축제 행렬에서의 촛불을 단 월계수 가지 장식 등 옛날의 성목(聖木) 숭배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흔히 "크리스마스 트리"로 전나무를 사용하게 된 데는 전설이 있다. 8세기경 독일에 파견된 선교사 "오딘"은 신성하다는 떡갈나무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야만적 풍습을 중지시키기 위해 옆의 전나무를 가리키며 "이 나무 가지를 가지고 집에 돌아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라"고 설교한데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이다.

현대를 사는 모든 성실한 종교개혁의 후예들, 정통 신앙의 말씀 중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 하신다. "너는 허망한 풍습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출 23:1~2)

2. 크리스마스의 시작

로마 교회

로마에서는 4세기에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결정하고 이어서 1월 6일을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를 방문한 현현일 (Epiphany)로 기념하였다. 예수의 세례 기념일은 1월 6일로 부터 옥타브가 되는 다음주 같은 날로 연기하여 지키는데 이날에는 예수가 세례를 받았다는 정도로 기억할 뿐 특별한 행사는 없다.

본래 로마에서는 하루 해가 가장 짧았다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12월 25일을 "태양의 탄생일"로 보고 이날을 축제일로 삼아 농업을 주관하는 Saturnalia라고 불리는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이것은 주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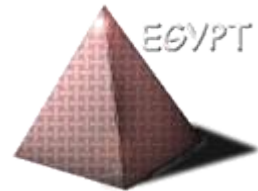
274년 Aurelian 로마황제에 의하여 되어진 일이다. 북구라파에서는 이전부터 "태양이 다시 소생"하는 동지 (冬至)를 크게 기념하는 축제(Festival)를 전통적으로 지켜 왔었다.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요 1:9)이라고 한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빛"의 탄생이다. 로마에서 이교도들이 12월 25일을 "태양의 탄생일"로 정한 것과 기독교에서 "세상의 빛"이 탄생한 날을 12월 25일로 결정한 것은 이교도들의 "태양의 빛"과 기독교의 "세상의 빛"을 일치시킴으로 기독교를 이교도들에게 더욱 의미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 같다. 기독교인들이 사용한 그 시대를 기록한 력기를 보면 주후 336년전에 이상과 같이 결정해서 지킨 것을 알 수 있고, 이날(12월 25일)을 교회력의 첫날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집트

이집트에는 희랍의 철학, 동양의 신비주의, 기독교의 교리 등을 종합하여 얻은 "인간의 지식에 의하여 인간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노시스(Gnostics)라고 하는 기독교의 이단 집단이 있었다. 약 200년경에 Clement (Clement of Alexandria)가 1월10일 (일부 사람들은 1월 6일 이라고도 함)을 그리스도의 세례를 기념하는 날로 지켰다고 하는 기록이 있다.

이집트에서 1월 6일을 교회의 축일로 정한 것은 그노시스 교도보다 2세기 후인 380년에서 400년 사이에 결정된 일이다. 이집트에서는 이 날을 예수의 탄생일 겸 세례 기념일로 지켰다고 그 무렵 이집트를 방문한 John Cassian이 기록하고 있다.



동방교회

동방교회에서 크리스마스를 특정일로 정해서 지키기 시작한 것은 380년 Constantinople에서 비롯되었고, Antioch에서는 크리스마스를 계속 반대해 왔었다. 동 로마제국에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1월 6일을 현현일로 명확하게 분리하여 지키게 된 것은 431년 에베소 공의회(Council of Ephesus)에서 결정한 이후 432년부터이다.



예루살렘과 아르메니아

예루살렘에서는 크리스마스를 계속 부정해 오다가 6세기 이후부터 1월 6일과 12월 25일로 분리하여 경축하기 시작하였다. 아직도 Armenia 지방의 교회에서는 1월 6일에 성탄절을 지키고 있다. 이와 같은 전통 때문에 1월 6일 현현일을 "작은 크리스마스"(Little Christmas) 또는 "구 크리스마스"(Old Christmas)라고도 부른다. 우리나라 개신교회에서도 현현일을 지킬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동방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에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같은 날 천사들에 의하여 "기쁜소식"을 들은 목자들의 방문(눅 2:11)도 겸하여 경축하고 동시에 성경에는 동방박사가 언제 찾아 왔는지 확실한 날짜는 밝히지 않았지만 동방박사의 경배도 아울러 기념하고 있다. 그러나 동방교회에서는 탄생과 목자만을 기억하고 동방박사의 경배는 현현일에 기념한다.



3. 크리스마스와 캐롤

Christmas와 캐롤 (Carol)

크리스마스의 전통과 관습 중에서 가장 즐겁고 빠 놓을 수 없는 것은 캐롤을 부르는 것일 것이다. 캐롤은 본래 불란서 말 carole에서 온 말로 주로 중세 불란서에서 둥근 원을 만들어 춤을 추었던 원무(圓舞)를 일컫던 말이었다. 이 원무는 동지때 가졌던 축제에서 사용한 이교도들의 무곡이었다고도 한

다. 그러므로 캐롤은 춤출 때 부르는 노래를 일컫는 말이어서 캐롤이 모두 크리스마스와 반드시 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그 음악이 캐롤인지 아닌지는 곡의 가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음악적 형식으로 판단하였다.

그 곡에 버든(Burden)이라고 불리우는 후렴이 각 절의 가사 끝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 했는데 이것을 형식으로 보면 B, V1, B, V2, ... B의 형식이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캐롤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캐롤은 우리가 현재 아는 바대로 크리스마스 노래만을 한정해서 일컫는 말은 아니다. 그 시대의 캐롤은 다양하게 쓰여져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캐롤이 동정녀 마리아, 아기 예수, 등을 주제로 한 연유로 크리스마스 노래인 것 같으나 실상은 부활절 캐롤도 있고, 고난절, 승천일, 성령강림 주일 등등 1년 교회력의 모든 절기에 맞는 캐롤이 있다.

옥스포드 대학에서 출판한 『The Oxford Book of Carols』에 보면 모든 절기에 맞는 캐롤 200여곡이 실려 있다. 대부분의 캐롤이 라틴어와 영어 두 언어를 섞어 쓰고 있는 것이 캐롤의 또 다른 특색이다. "저들 밖에 ... 노엘, 노엘," "천사 찬송하기를... 글로리아(영광)," 등은 좋은 예이다. 15 세기에 있어서 캐롤은 대중적인 종교 가곡이었고, 불란서의 론도(rondeau), 비렐레이 (virelai), 발라드(ballade)와 견줄 수 있는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고정된 음악 형식이었다.

캐롤 음악의 중요성은 그 음악의 화성에 있지 않고 선율과 리듬에 있다. 일반적으로 캐롤은 즐거운 노래로 된 것이 특징이고 대중에게 많이 불려지도록 되어 있다. 캐롤은 본래 교회의 절기 때마다 부르는 모든 노래를 일컬었지만, 특별히 크리스마스 노래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크리스마스 캐롤을 독일에서는 바이나흐트 리트(Weihnacht lied) 라고 하는데, 이는 영어로 Christmas eve song이란 뜻이고, 불란서에서는 노엘(Noël)이라고 한다. 노엘이란 말은 영국으로 건너와서 노웰(Nowell)라 불려졌다.

캐롤의 내용

성 프랜시스(St. Francis: 1181-1226)가 처음 시작 했다고 하는 마굿간 앞에서 사람들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행사를 가졌다. 여기에서 부른 노래와 춤이 캐롤이고 원무였다. 고대 캐롤이 수록된 한 雜記帳이 1850년 발견 되었는데 그 잡기장은 Richard Hill이란 영국의 한 식료품 가게 주인이 1500년부터 1536년 사이 자기가 기억해야 할 모든 것을 기록해 둔 것이었다.

무게 환산표, 장날, 약처방, 음식 조리법, 자기 아이들의 생일, 맥주 만드는 법 등과 수수께끼, 글 맞추기, 영어, 불어, 라틴어 詩 등을 기록해 놓고, 여기에 그 시대의 많은 캐롤을 수록해 두었다. 그 외에도 조잡하게 인쇄된 낱장으로 된 캐롤이 남아 있는 것이 있고, 구전되어 내려오는 캐롤, 민속음악 수집가들에 의하여 수록 편집된 캐롤 등에서 옛 캐롤을 찾아 볼 수가 있다

그리스도의 탄생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과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특별히 불란서 캐롤은 목가적이고 전원적인 요소가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태리의 나폴리 같은 지방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언덕 위 목장에서 목동들이 내려와 마굿간이 설치되어 있는 앞에서 춤을 추며 캐롤을 부르는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Handel이 작곡한 [메시아]중에 전원 교향곡이 나오는 데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와 함께 빼 놓을 수 없는 들의 목자들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 시대 목자들이 백파이프 (bagpipe)로 연주하는 음악을 그대로 전원 교향곡으로 만든 것이어서 밑의 저음은 같은 음이 계속되는 통주음(通奏音)에다 그 위에 고음이 화려하고 맑고 조용히 움직이는 선율로 되어 있어 조용하고 평화로운 베들레헴의 들과 잠자는 양떼들, 차가운 밤하늘과 별빛을 잘 묘사했다고 보여진다. 이 음악이 끝나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주께 영광" (Glory to God)을 노래하는 순서가 이어 진다. 캐롤 중에는 천사들의 노래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역사상의 첫 캐롤을, 천사들이 하늘에서 불렀기 때문이다. 천사들의 찬양이 주제로 된 것 중 우리가 쉽게 아는 것은 "천사 찬송하기를..." "하늘 위의 천사들... 영광..." 등등이 있고, "Ding, dong, Meririly on High.... Gloria in excelsis Deo" 등을 들 수 있다.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는데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찬양한

것을 그들이 처음으로 들었으나 그 음악, 그 멜로디와 리듬과 화음이 어떠했는지는 애석하게도 우리가 알 길이 없다.

그 때 천사들의 합창이 어떤 것이었는지 실로 궁금하기 그지없다. 많은 작곡가들이 그 천사들의 찬송을 캐롤로 작곡해 놓았는데 과연 어느 만치 그때의 천사 노래에 흡사한지는 모르겠다. 그 외의 많은 캐롤이 성경말씀 이외의 내용으로 된 것이 많다.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재미있고 진귀한 아이디어를 내용으로 한 것이 대단히 많은데 이런 것들은 본래 캐롤이 춤을 추기 위한 노래이고, 즐겁고 흥겹고 경쾌한 기분을 노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 예배에서 부를 수는 없는 곡들이다.

"Jingle Bells", "산타클로스가 마을에 오네"(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빨간코 루돌프"(Rudolf the Red-nosed Reindeer), "White Christmas",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등등은 예배에서 부를 수 없는 즐거운 캐롤이다. 특별히 "The Holly and the Ivy"는 기독교적인 내용과 이교도적인 내용이 혼합되어 캐롤이 된 좋은 예이다.

캐롤링(Carolling) - 새벽송

19세기 상반기 영국에서는 집집을 방문하면서 캐롤을 불러주는 관습이 있었다. 부락의 모든 아이들은 크리스마스에 쓸 자금을 모으기 위하여 11월말부터 시작하여 각집을 돌아다니면서 캐롤을 부르곤 했던 것이다. 미국 작가 Washington Irving(1783-1859)이 1820년 영국을 방문했을 때, 크리스마스 날 밤 창문 밑에서 들려오는 합창단의 아름다운 캐롤 소리에 잠이 깨었다고 한다. 그 합창단은 십여 명의 옆 동네 사람들로 구성되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창문 밑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화음이 서투르긴 해도 아름다웠다고 기록하고 있다.

캐롤링은 그리스도 탄생의 기쁜소식을 천사들이 찬양으로 전했던 것처럼 크리스마스 새벽이면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을 집집마다 전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한국에서도 6.25후 얼마 동안까지 크리스마스 새벽이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이 캐롤링의 전통을 유지 했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밤이 너무 무질서하고 퇴폐적인데다가 새벽의 노랫소리가 옆집의 비기독교인 가정에 안면방해가 되어 기쁜 소식이 아니라 불쾌한 원성이 높다고 하여 교회가 자진하여 캐롤링을 삼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크리스마스 캐롤 이외의 캐롤

캐롤은 크리스마스 캐롤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미 말했다. {The Oxford Book of Carols}를 보면 1년 열 두달 교회력에 따라 200여개의 무수히 많은 캐롤이 수록된 것을 볼 수 있다. 캐롤은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야외에서도, 무도회에서, 음악회에서, 그리고 집에서도 광범위하게 불려질 수 있는 음악이다.

우리가 캐롤을 크리스마스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많은 캐롤이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하여 씌어졌기 때문이다. 마치 요즘 대학생들이 기타에 맞추어 가스펠 송을 즐겨 부르듯이 캐롤을 계절과 교회력에 맞추어 교회의 모임과, 그룹 활동, 여전도회, 청년회 등의 모임과 예배에 두루 사용 한다고 하면 즐거운 기분을 북돋우어줄 뿐만 아니라 은혜와 감명도 받을 수 있어 장려할만 하다고 본다.

큰 교회에서는 대곡을 가지고 매주일 연주를 할 수 있지만 작은 교회 성가대는 대 합창곡을 하려고 힘겹게 애쓸 것이 아니라 캐롤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교회의 절기에 맞추어 부를 수 있는 캐롤이 많이 소개되지 않아서 애로가 많지만, 노래를 번역할 수 있는 교회 음악가는 이와 같은 음악을 많이 번역하여 작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해 줄 필요가 있다.

큰 교회에서도 가끔 대합창곡 대신 캐롤을 연주한다든가 또는 예배 후 찬양대가 캐롤을 합창하고 교인들로 하여금 후렴이나 또는 3,4,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신앙생활에서 즐거움을 증가시켜 주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크리스마스, 부활절, 추수 감사절 등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중요한 이유는 이 절기의 찬송가와 찬양대의 음악이 모두 즐겁고 흥겹기 때문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캐롤 복원 운동

17세기에 영국과 Scotland의 청교도들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교적인 축제를 지키는 것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 캐롤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크리스마스 축하 행사를 금지 시켰었다. 그러나 청교도들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1660년부터 영국에서 크리스마스 축제 복원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Scotland의 장로교회에서는 계속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았고 그 대신 정월 초하루를 크리스마스 못지않게 즐겁고 흥겨운 명절로 지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교회에서 신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Scotland 교회의 영향이라고 본다.

이와 같은 청교도들의 극심한 캐롤에 대한 핍박으로 캐롤의 본래 의미가 희석되기에 이르렀다가 1831년 J. W. Parker에 의해 [크리스마스 캐롤집] (Christmas Carols)이 출판되었고, 그 음악적인 수준이 미흡했음에도 불구하고 1857년에 재판되었다. 이곳에 수록된 캐롤이 훌륭한 캐롤이라고는 볼 수 없었다. 이때 영국 감리교회의 Charles Wesley를 중심으로 캐롤 부흥운동이 시작되어 많은 캐롤이 새로운 양식으로 만들어졌다.

예를 들면, "천사 찬송하기를..." 또는 "첫번 노엘" 등 찬송 스타일의 캐롤이 등장한 것이다. 미국 대륙에 건너간 청교도들도 처음에는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았고, 따라서 캐롤도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캐롤을 부르는 것은 지극히 근대의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목사 J. H. Hopkins가 "동방박사 세 사람..."을 쓰게 된 것이 1857년경이고, Boston의 Trinity 교회의 목사였던 Philip Brooks가 "오, 베들레헴 작은 골..."을 쓴 것이 1868년의 일로 이때부터 신대륙에도 옛 캐롤의 전통이 복원되어 전파되어 나가게 되었던 것이다.

캐롤을 통해서 교회음악의 토착화 운동을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의 세속적인 축일로 결정한 것은 일종의 기독교 토착화라고도 볼 수 있다. 우리도 크리스마스 때 서양에서 온 행사만 답습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토속적인 축제 행사가 크리스마스와 융합된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월 대보름의 행사가 크리스마스 행사와 융합하여 기독교적인 신학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부터 차츰 받아들일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기독교의 감사절 행사도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미국의 감사절(Thanksgiving holiday)에 따라 11월에 지킬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추석을 기독교의 감사절로 하고, 추석의 민속적인 놀이를 기독교화하면 좀더 쉽게 토착화될 것이다. 이미 시내의 경동 교회에서는 추석날을 감사절로 정하고 몇 년 전에는 마당놀이를 갖는 것을 보았다. 펍 앞서가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교회음악의 토착화운동도 캐롤음악으로 시작하면 구태여 예배에서 부르지 않아도 되는 음악이기 때문에 토착화 과정도 순조로울 것이다.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찬송가만을 교회에서 부르다가, 타령이나 판소리 같은 찬송을 부르게 되면 교인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받을 것은 확실하다. 역사의 변화과정을 이해하고 점차적이면서 은연 중에 한국 교회음악을 이끌어 가야할 것이다.

4. 크리스마스의 전통과 습관

크리스마스 장작

고대 Scandinavia에서는 동짓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큰 화로에 불을 붙이는 전통이 있었다. 이것은 동지까지 해가 짧아 지다가 이 날로부터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여 "태양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였다. 태양이 없는 겨울을 지내는 북극지방의 사람들에게 태양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일이다. 이 전통이 영국에 와서는 큰 장작(크리스마스 장작 또는 Yule log)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벽난로(fire-place)에서 불을 붙여 밤새도록 태워 방도 따듯하게 하고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도 돋구는 풍습으로 전해져 왔다.

촛불예배

예수는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참 빛이 시며... 그 빛이 어둠에 비치니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고 기록하고 있다. 천주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자정 촛불 미사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세상의 빛"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등장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개신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자정 촛불예배를 별로 지키지 않는다.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이외에 촛불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경우는 고난주간의 세족 목요일 저녁예배이다. 이 경우의 촛불예배는 크리스마스의 경우와는 정 반대이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밝았던 세상이 다시 어두워지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철연을 한마디씩 읽고 명상하든가 또는 합창단이 노래하고 나면 촛불을 하나씩 꺼 나가는 것으로 명상이 계속되는 동안 촛불은 둘 셋 넷... 꺼져 종국에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왕촛대의 불만 남기고 어두운 가운데에서 예배를 마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개신교회 중에서는 새문안 교회가 매년 크리스마스과 세족 목요일에 촛불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촛불예배는 1982년에, 고난음악 촛불예배는 1983년에 필자가 시작한 것이다.

상록 담장 넝쿨

크리스마스가 되면 교회를 파란 담장 넝쿨로 장식하고, 또 그렇게 장식된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고 받는다. 이와 같은 풍습은 북 유럽의 비기독교인들의 전통이 역시 영국에 전해진 것이다. 아리안 인종의 한 분파로 Ireland와 Wales 및 Scotland에 사는 켈트족과 독일족들은 동짓날 축제 때가 되면 상록 담장 넝쿨을 영원한 생명의 상징으로 숭배했었다.

이 식물을 숭배하게 된 이유는 태양이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질 때 쓰신 가시 면류관이 담장 넝쿨로 만들어졌다고도 한다. 전설에 의하면 이 담장 넝쿨은 본래 흰 열매를 맺는 식물이었는데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 예수의 머리에 눌러 씌움으로 예수의 머리에서 피가 솟구쳐 나와 빨간 열매로 변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 크리스마스 때 담장 넝쿨로 화환을 만들어 교회와 집 문에 붙이는 관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면류관의 상징이다.

크리스마스 트리 (Christmas tree)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 가장 신빙성이 있는 것이 독일에서 Martin Luther가 처음으로 시작했다는 이야기이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 하늘에 별이 빛나고 그 밑에 상록수가 서 있는 모습이 Luther의 마음속에 깊은 감명을 주었다. 그는 상록수의 끝이 뾰족하여 마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같이 보여 이와같은 나무를 준비하여 자기 집 방에 세우고 거기에 별과 촛불을 매 달아서 장식을 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

또 다른 이야기에 의하면 상록수는 이교도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상징"이었다는 것이다. 이교도들의 "생명의 상징"인 상록수와 기독교인들의 생명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하나로 통합되어 이루어진 전통이 "크리스마스 나무"라는 것이다.

싼타클로스 할아버지

뚱뚱하고 배가 볼록할 뿐 아니라 기분좋게 "호! 호! 호!"하고 웃는 흰 수영이 있는 신타클로스 할아버지는 4세기에 소아시아 지방의 조교로 있었던 좋은 일을 많이 행한 성 니콜라스(St. Nicholas)를 의미한다고 한다. 선물을 나누어 주는 신타클로스의 풍습은 성 니콜라스가 평상시 불쌍한 어린이들에게 많은 선물을 나누어 준 것을 기념하는 관습이다.

처음엔 소아시아에서 시작된 것이 구라파에 전해졌고, 그것이 화란 사람들에게 까지 전해졌는데 이들 중 많은 수가 미국으로 이민해 감으로써 미국에까지 전파되었다고 한다. 신타클로스가 선물을 배달하면서 "호! 호! 호! 메리 크리스마스!" 라고 즐겁게 외치는데, 이것은 미국작가 Washington Irving이 신타클로스를 항상 웃는 즐거운 인물로 묘사한 {Visit from St. Nicholas}를 1822년 Clement Moore가 작곡 함으로("T'was the Night before Christmas") 시작 되었다. 신타클로스가 흰 털이 달린 빨간옷

과 검은 벨트를 두르고 긴 고깔모자를 쓴 모습은 미국 만화가 Thomas Nast가 1863년에 그린 만화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크리스마스 선물교환

로마에서 썰터날리아로 지키는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는 흥겹게 지내는 계절이었다. 이때는 집안을 상록수나 상록 담장넙쿨, 그리고 촛불로 장식을 하고 선물을 어린이들과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종들에게 주는 풍습이 있었다. 이와 같은 풍습이 크리스마스에까지 영향을 미쳐 오늘날도 선물을 교환하고 있다. 또한 동방박사가 아기예수를 찾아와 황금, 유향, 몰약을 선물로 드린 것을 본받아 기독교인들 간에는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풍습이 생겼을 것이다.

마굿간의 설치

크리스마스 때 한국의 개신교회 중에서 마굿간을 만들어 전시하는 교회는 별로 없다. 그러나 명동 성당에 가면 마굿간이 해마다 설치됨을 본다. 거기에는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고, 옆에는 요셉이 서 있고, 양과 짐승들도 있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엄숙하게 경배를 드리고 있다. 교인들은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고 간다.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철이 되면 여기저기서 마굿간을 구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마굿간은 13세기 아씨씨의 성 프랜시스(St. Francis of Assisi)가 처음 시작하였다고 한다. 성 프랜시스는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경축하기 위하여 그 앞에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것도 권장하였다. 여기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시작되었다.

기 타

이 외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Lord of Misrule"이란 것이 중세 크리스마스 때 행해졌었는데 이것은 평민 또는 대군주의 노예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 그가 군왕이 되어 크리스마스 축제기간 동안 절대 권력을 가지고 천하를 다스리게 하는 전통이다. 이들은 대부분 사회의 대혼란을 일으키곤 했는데 이 전통도 썰터날리아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한다. 썰터날리아 축제기간에는 모든 노예에게 그들의 주인과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였었다.

5. 각국의 크리스마스 인사

즐거운 성탄절을

영어로는 **메리 크리스마스**(Merry Christmas)
브라질 말로는 **펠리쓰 나탈**(Feliz Natal)
헝가리어로는 **볼록 카락소니**(Boldog Karacsony)
이탈리아어로는 **부옹 바탈리**(Buon Batale)
스페인어로는 **펠리쓰 나비닷**(Feliz Navidad)
독일어로는 **프릴리히 베인아크텐**(Frohliche Weinachten)
스웨덴어로는 **글래드 율**(Glad Yul)
프랑스어로는 **조이유 노엘**(Joyeux Noel)
히랍어로는 **칼라 크리스토게나**(Kala Christougena)
중국에서는 **셹탄 쿠와일러**(Sheng Tan Kuailoh)
일본에서는 **메리 구리수마수**
러시아어로는 **스로체스토봄 크리스토빔**(Srozhestvom Khristovym)
필리핀 따갈어로는 **말리가양 빠스코**(Maligayang Pasko)

크리스마스가 가까워 오면 곳곳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써 놓은 것을 보기도 하지만 간단하게 X-MAS라고 쓴 것도 볼 수 있다.

이 표기를 영어의 X로 생각하여 어떤 분은 X-MAS는 잘못된 표기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표기보다는 진정한 의미의 X-MAS를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여기에서 X 자는 영어 알파벳의 X자가 아니다.

헬라어의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첫 자인 '크스'자로서 이 뒤에다 MAS자를 붙인 것이다. 그러므로 표기는 X-MAS로 할 수 있지만 읽을 때에는 반드시 '크리스마스'라고 해야 한다. 만일 이것을 표기한 대로 X-MAS라고 읽는다면 완전히 본 뜻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지난날을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은 표기대로의 X-MAS를 지켜왔던 것은 사실이다. 수학에서는 미지수의 표기를 X.Y.Z로 표시한다. 그것은 '모른다'는 뜻으로 성탄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단지 하나의 축제로 지낸 우리들의 크리스마스는 곧 X-MAS였다.

이제 진정한 크리스마스로서 지켜나가야 한다.

— 이영제목사 —

예화

하나님의 방법

세상에서 잘나가던 크리스천이 있었다.

어느 날 유람선을 탔다가 그날 그 배가 침몰했고 그 남자를 혼자 무인도에 떠내려가게 되었다. 원망도 있었지만 살았다는 기쁨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혼자라는 외로움에 파묻힐 틈도 없이 살아 남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했다.

낮에 뜨거움을 피하기 위해 돌과 나무를 엮어서 겨우겨우 움막을 완성하던 날 감격에 기쁨이 복받쳐 울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불이 나고 말았다.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부랴부랴 달려왔지만 그의 움막은 다 타버린 후였다. 드디어 그는 하나 님께 원망을 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뱃고동소리가 울렸고 그 배가 무인도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

결국 그는 구출되었고 너무나 뜻밖이라 선장에 물어보았다.

"이곳은 무인도인데 어떻게 오게 되었고 내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선장이 의외라는 듯 말했다.

"당신이 불을 피워 연기를 쏘지 않았던가요?"

우린 그 연기를 보고 찾아왔답니다."

"하나님의 미려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25]

29. 쿠파



■ 잃어버린 염소

1947년 5월의 어느 봄날. 한 베드윈(Bedouin) 소년이 염소 떼를 돌보다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염소를 찾고 있었다. 사해 서쪽 해안의 절벽 지대의 한 동굴 속에 돌맹이를 던졌다가 향아리가 깨지는 소리를 듣고는, 친구를 불러 동굴 속으로 들어 가 보았다. 입구는 좁았지만 굴은 들어갈수록 넓어졌다. 안은 길이 8.5m, 너비 3m, 높이가 3m나 되는 꽤 큰 굴이었다.

그곳의 한쪽 구석에는 깨진 질그릇 조각들 사이로 향아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높이가 60cm 가량 되는 큰 향아리들이었다. 무하마드와 아메드는 조심조심 향아리 뚜껑을 열어 보았다. 뭔가 시커먼 덩어리들이 드



러났고, 꺼내보니 얇은 양가죽을 꿰매서 이은 두루마리였다. 너비 44cm에 길이 1m~8m나 되는 그 두루마리들에는 뭔지 모를 글자들이 깨알처럼 적혀 있었다.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 보물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골동품상에 가져가면 몇 푼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두 소년은 그것들을 꺼내 들고 동굴을 나왔다. 무하마드가 다섯 개, 아메드가 세 개.

■ 신비한 두루마리



두 소년은 베드윈 족장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갔다. 아메드는 골동상 한 군데에서 싼값으로 두루마리 세 개를 팔고 돌아갔다. 무하마드와 족장은 돈을 더 받을 욕심에 몇 군데를 더 기웃거렸다. 아주 귀한 것이라고 우기는 족장의 말에, 골동품 상인은 알아보고 나서 값을 매기겠다고 하였다. 족장과 무하마드는 그 상점에 두루마리 다섯 개를 맡기고 천막으로 돌아갔다. 골동상 주인은 그 길로 이스라엘의 성마르크 수도원으로 사무엘 대사교를 찾아갔다. 한동안 두루마리를 살펴보던 대사교는 할 말을 잊은 채 어쩔 줄을 몰라했다. 그의 눈은 뭐라 말할 수 없는 놀라움으로 가득차 있었다. 대사교는 두루마리에 씌어진 글은 히브리 글일 것이라는 말과 함께 5파운드에 사겠다고 했다.

사무엘은 이 두루마리가 어쩌면 구약성서 원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구약은 유대인들의 가장 성스러운 경전이다. 이것은 야훼 하나님이 당신께서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야훼의 계시를 담고 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성스럽게 여기는 구약은 그때까지도 그 원본이 발견되지 않고 있어서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었다. 사무엘의 가슴은 갑자기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만약 히브리 글자로 씌어진 이 두루마리가 구약의 원본이라면? 그는 서둘러 예루살렘에 있는 아메리카 동방 연구소의 트레버 박사를 찾아갔다.

확대경으로 한 자 한 자 읽어 내려가던 트레버는 어지러운지 잠시 일손을 놓고 눈을 지그시 감았다. "아, 하나님! 이것이 꿈이 아니기를! 어떤 은총으로 내가 이 귀중한 것을 보게 되었을까? 사무엘 대사교님, 이것은 틀림없는 구약 성서입니다. 아직 증거가 없다 뿐이지 제 생각



에는 구약 원본이 틀림없습니다." 그때까지 서기 1008년에 기록된 레닌그라드 사본(Leningrad Codex)이 가장 오래된 구약성서의 사본이었는데 이 사해 사본은 그보다 무려 1100여년이나 앞선 서기 전 100년을 전후하여 기록된 것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끌게 되었다.

그들은 곧 사진 촬영에 들어갔다. 두루마리를 잘 다듬어 사진을 찍는데는 무려 아홉 달이나 걸렸다. 1948년 2월 그 사진은 세계 여러 나라의 유명한 고고학자들에게 보내졌다. 그로부터 한달쯤 지난 3월 15일, 사무엘 대사교는 미국 존 홉킨스 대학 고고학 교수 알브라이트 박사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이처럼 거룩한 경전을 구해서 보내주신 대사교님께 축복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문서는 구약 원본이며 기원 전 1백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발견은 믿어지지 않을 만큼 큰 발견이며, 인류 역사에 가장 뛰어난 발견입니다. 부디 나머지 두루마리도 찾아서 구약 39권을 모두 갖추게 되기를 빕니다."



그 무렵, 이름 난 성서학자인 히브리 대학 고고학과장 수케닉 박사도 옛 두루마리 세 개를 연구하고 있었다. 그것은 아메드 소년이 판 두루마리였다. 그 또한 이 두루마리가 구약 원본임을 알고 있었다. 나머지 두루마리들만 손에 넣을 수 있다면, 이것이 구약 원본임을 증명하는 일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나머지 두루마리 다섯 개를 사무엘 대사가 가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사무엘과 수케닉이 만난 날, 두루마리 여덟 개가 합쳐진 날, 그 날은 인류가 잃었던 보물을 되찾은 날이 되었다. 그들은 두 달 동안 두루마리들을 살살이 조사하고 나서 기자들을 불러 모았다. 기자들은 숨을 죽인 채, 수케닉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떨리는 목소리를 받아 적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에는 구약의 이사야서 원본이 들어 있습니다. 그밖에도 예세네 교파에서 썼던 '공동체 계율', '빛의 아들과 어둠의 아들 싸움', '감사 찬미가 모음'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크나큰 기쁨과 행운을 얻는 일이 다시는 올 수 없을 것입니다."

30.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BC 876년 오므리(Omri) 왕에 의해 세워진 북 이스라엘의 수도였다(왕상 16:24). 히브리어의 쇼므론(Shomron)이라는 이름은 사마리아의 산 주인이었던 세멜에게서 기인한 것이다. 그의 아들 아합왕은 두로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사마리아를 페니키아의 지대한 영향을 받은 도시로 발전시켜 나갔고, 그곳에서 22년간 통치하였다. 그의 이방문화에 대한 치적에 관하여는 선지자 엘리야의 지적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왕상 16:29~34).

<사마리아 산지의 염소떼> 사마리아 왕궁의 화려함은 예언자 아모스와 호세아를 통해 반영된다. '겨울궁'과 '여름궁', 그리고 '상아궁'과 '큰 궁'등의 표현은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다(암 3:15, 6:4, 왕상 22:39), 상아를 비롯하여 엄청난 규모의 아합의 도시는 고고학적인 발굴 결과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다.

앗시리아가 사마리아를 치고 그곳에 군대를 주둔 시켰으며(왕하 17:24), 페르시아는 영주의 수도로 삼았다. BC 108년 헤스모니아의 존 힐카누스는 로마의 허락으로 재건하였으며, BC 30년 헤롯 대왕은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위해 이 도시를 수축하여 그에게 헌정하면서 도시의 이름을 세바스티아(Sebaste Augustus의 헬라 이름)라 불렀다. 그가 대리석으로 세운 신전과 극장, 그리고 탑등은 제 1차 유대 반란 기간 동안 로마에 의해 무너졌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 처형된 곳이 바로 사마리아며, 11세기에 요한 순교 기념교회가 세워졌다.

■ 사마리아인

인구 400(나불루스에 240만명, 홀론에 160만명)만의 사마리아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종족이면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종족이다. 한때 강력한 힘을 지녔던 사마리아인 들은 2,500년간 순수한 혈통을 간직하고 있다. 같은 핏줄이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분리된 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이다. 사마리아 주민들은 당시 추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정복자인 앗시리아인들과 혈통적으로 혼합되었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이 그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사마리아인들도 극도의 증오심을 가지게 되고 독자적으로 유대인들과는 상반되는 제단을 쌓게 되었다.

현재의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의 옛 율법에 따라 예배하며 제사장이 통치하고 있다. 모세 5경만을 믿는 그들은 양 피지에 적힌 모세 5경의 고사본을 소유하고 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것이 손으로 기록한 것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며, 3,600년 전에 모세의 형 아론에 의해 기록된 것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사마리아인들은 가난하며 그들 집단 내에서만 결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병약하다. 매년 양을 잡아 그들의 성스러운 산인 그리스 산 위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지금도 유월절 제사는 정확히 구약 그대로 한다.

1. 바른습관과 자세

현대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해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학교생활의 대부분이 의자에 앉아서 이루어지고, 학원생활, 도서관이나 컴퓨터 등 많은 시간을 의자에서 보냅니다.

친구들과의 여가 시간의 활용도 이전과는 많이 틀립니다.

오락실이나 게임 방에서 장시간 모니터 앞에 있거나, TV를 오래 본다든지 하는 습관은 단지 자세에 영향을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식사를 거르거나 운동을 게을리 하게 됨으로써 더욱 성장에 나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청소년들은 예전과 달리 흡연이나 음주의 정도가 심해서 성장에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게다가 흡연이나 음주에 대한 영향에 대해 잘 알려주지 않아서 막연히 '어른들이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기도 합니다.

가방도 무거운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 매다 보면 무릎의 성장판이 눌러져 성장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학교와 집에 책을 분산해서 꼭 필요한 책만 갖고 다니도록 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그리고 등하고 길이 먼 친구들은 가방을 늘 양쪽 어깨로 매는 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 시기에는 이른바 '밤샘 공부'도 좋지 않습니다.

성장호르몬이 밤에 분비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는 꼭 잠을 자고 있어야 몸이 고루 발달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을 거예요.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일찍 자서 새벽에 하거나 해서 자신의 나쁜 습관을 고치도록 해야 되겠죠?

성장기 때의 이런 습관들 하나 하나들은 어른이 되었을 때의 신체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는 나쁜 습관이 없는지 각별한 주의를 가져야겠죠?

바른 습관과 자세야말로 '무엇을 먹는 것'이나 '어떤 운동을 하는 것' 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의자에 앉는 자세

여러분이 새로이 학년이 올라가면 새로운 자리에 앉게 되죠.

많은 학교들이 책상이나 의자가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편한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좋은 책상이나 의자가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자신이 앉는 자세에 따라 더욱 성장에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에도 좋겠지요?

일단 의자부터 설명해 볼까요?

의자의 높이는 무릎 아래의 길이와 같은 것이 이상적입니다.

뒤꿈치가 들릴 정도로 높거나 무릎이 올라갈 정도로 낮은 의자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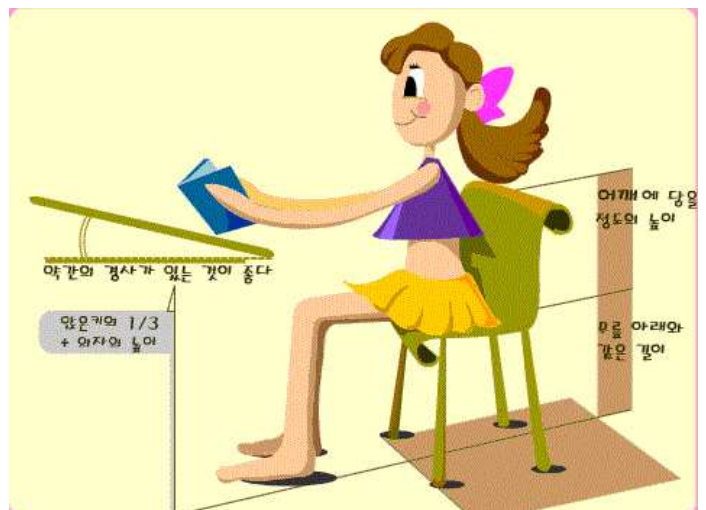
의자의 면적은 한쪽 길이가 45~50센티미터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엉덩이가 약간 가라앉을 정도로 적당한 커브를 그린 것이 안정적이지만 이런 의자들은 비싸기 때문에 방석 같은 것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등받이는 견갑골(등의 어깨뼈 부근) 근처

까지 오는 것이 적당하고 약간 뒤로 굽은것이 좋습니다.

의자의 경우는 앉았을 때 등이 곧게 펴지고 뒤꿈치가 바닥에 닿은 상태에서 무릎 아래의 부분이 직각을 이루게 하는 의자가 이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집 2』 찬바람 불면 뇌중풍 조심

11월 들어 날씨가 서늘해지면서 잘 생기는 질병 가운데 뇌중풍(뇌졸중)이 있다. 최근 ‘원초적 본능’의 여배우 샤론 스톤도 뇌중풍이 생겼지만 다행히 일찍 조치해 일주일 정도 입원하는 것으로 끝났다. 이처럼 뇌중풍은 제때 치료 받으면 큰 후유증 없이 나올 수 있는 질환이다.

뇌중풍은 한국에서 암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다. 뇌중풍은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나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있다. 한국인에게는 뇌경색이 많다. 뇌중풍은 바로 알고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 뇌중풍 조짐 - 고혈압과 당뇨, 흡연이나 비만, 65세 이상, 한번 뇌중풍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은 뇌중풍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뇌중풍 환자의 10~20% 정도는 일종의 경고신호(전조현상/표창조)를 받는다. 즉 △한쪽 팔 다리에 힘이 빠진다. △갑자기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갑자기 중심잡기가 어렵고 비틀거린다.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 △갑자기 한쪽 얼굴이 저리거나 먹먹하다. △갑자기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 △단어가 갑자기 생각나지 않게 돼 표현능력이 떨어지거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치매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 △한쪽 팔 다리가 다른 사람 살처럼 느껴진다. △전에 경험하지 못한 아주 심한 두통이 갑자기 생긴다 등이 있다.

강북삼성병원의 신경과 김용범 교수는 “뇌중풍 경고신호는 보통 수 분간, 길게는 1시간 정도 일시적으로 왔다가 정상적으로 회복된다”면서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 응급실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뇌중풍 예측지수 - 정상인도 뇌중풍에 걸릴 가능성을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다. 뇌졸중과 관련 깊은 △65세 이상의 고령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여성 △고지혈증 △흡연 △가족 병력 등 각각의 요소를 각각 1점으로 계산해 개인별로 점수를 합산해 본다. 을지병원 신경과 배희준 교수는 “1점이 올라갈 때마다 뇌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이 2.2배가 높아진다”면서 “예측지수가 2점 이상이면 평소 뇌졸중에 조심하고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예방법 - 평소 건강한 사람이라면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음식은 싱겁게 먹고 야채와 채소를 많이 먹는다. 담배를 끊고 술도 끊거나 적게 마신다. 쇠고기나 돼지고기에 붙어 있는 기름, 내장, 닭 껍질 등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은 적게 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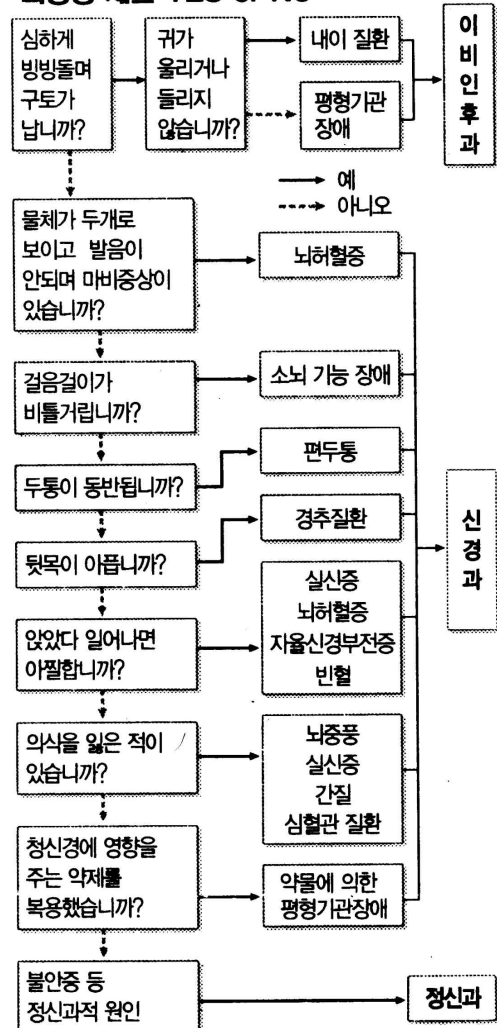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혈관질환, 경동맥 질환 등 뇌중풍의 위험원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치료하거나 나빠지지 않도록 잘 조절한다.

나이가 든 사람은 △과음 △감기 등 감염증 △더운 곳에서 갑자기 추운 곳으로 나가는 일 △스트레스 등은 피한다.

▼ 가정 응급조치 - 나이가 든 사람이 갑자기 한쪽 손발 등에 마비가 오거나,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어지럼증과 눈이 잘 안보이면 빨리 큰 병원의 응급실로 데려간다. 의식이 없다면 구급차가 올 때까지 환자를 편안히 눕히고 넥타이나 벨트 등을 푼다. 구토를 했다면 재빨리 얼굴을 옆으로 돌리고 입안에 있는 구토물을 딱아 숨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한다.

정신을 잃었다고 해서 △빵을 때리거나 △찬물을 끼얹거나 △손가락을 따거나 △약 등을 먹이는 일은 좋지 않다. 뇌경색이 심한 사람은 발병 후 3~6시간 안에 혈전용해 치료를 해야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뇌중풍 체크 YES or NO



북한에서 온 편지

죽음에서 살려주신 남쪽형제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난 행군으로 굶주림에 지친 우리 인민들에게 장질부사가 퍼지면서 더 이상 생명을 부지하기 어려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때 먹을 것과 약이 우리 손에 들어 온 것은 참으로 기적이었습니다.

발열과 오한으로 신음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 주시오!" 하고 오직 기도만 했습니다.

전염병은 우리 인민을 죽음으로 휩쓸어 갔습니다.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은 무조건 새끼줄을 치고 아무도 들어와 다니지 못하게 했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죽음만을 기다립니다.

우리도 감금당한 채 끓일 것이 없어서 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굶주림과 병마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벌써 며칠째 버려진 상태에서 이제는 의식도 희미해졌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죽는가 보구나 하고 체념했을 때 흰옷을 입은 예수님이 우리 네 식구가 누워있는 방에서 계셨습니다.

생시도 같고 꿈도 같았습니다.

그때 사립문 열리는 소리가 나고 중국에서 온 형제가 들어 왔습니다.

나는 우선 사람만 봐도 살 것 같았습니다.

장질부사에 걸리면 모두들 피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죽으면 이불과 옷가지들은 거둬 불 지르고 송장은 나무토막 실어 가듯이 끌어다가 묻습니다.

이런 집이 한 동네에도 술하게 많습니다.

이런 판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예수를 믿게 했던 중국 형제가 찾아 온 것입니다.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 형제는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짐 보따리 속에서 먹을 것과 약을 내 놓았습니다.

"이 약은 남쪽에서 온 것이요. 예수 믿는 형제들이 보내 준 것인데 먹기만 하면 무조건 살아나오" 하면서 알약을 주기에 받아먹었습니다.

한 반시간 정도 지나고 나니 펄펄 끓던 열이 내렸습니다.

정신이 들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우리는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남쪽 형제들이 약을 보내준 것은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이고 기적이었습니다.

형제가 주고 간 쌀로 죽을 쑤어 먹고 정신을 차리고 회복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나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과 남쪽 형제들에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께 무엇으로 보답 할꼬.

나는 이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할 것입니다.

먹다 남은 약과 얼마 되지 않은 입쌀을 가지고 나는 죽어가는 이웃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을 살리고 예수를 전하기 위해 서입니다.

7월 28일 회O에서 이OO 씀

아래의 글은 북한 형제로부터 보내온 편지 원본입니다.

대한의학협회는 얼마 전 의료윤리지침을 발표하며, 뇌사(brain death)를 인정하는 입장을 천명한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전뇌사로서의 뇌사에 대한 인정이 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a)의 길을 터주는 것이라 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연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여도 되는 것인가?

현재 전 세계의 반 정도의 국가가 법률적으로 전뇌사로서의 뇌사를 인정하고 있다. 미국(45주), 대만, 프랑스, 스페인, 캐나다, 이탈리아, 체코 등은 뇌사를 인정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 이집트, 인도, 영국, 스위스, 독일 아프리카의 나라들은 뇌사를 법률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학협회에서도 뇌사를 잠정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이었으나, 금번 11월의 의료윤리지침 속에서, 뇌사를 포함한 몇 가지의 논쟁적 사안들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지침이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의협은 말한다. 그러나 그것이 실정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인간의 죽음은 크게 두 가지의 기준에 의거 정의되어 왔다. 하나는 심폐사이며 다른 하나는 뇌사이다. 심폐사는 심장과 폐의 활동이 불가역적으로 멈추는 것이며, 뇌사는 뇌의 활동이 멈추는 것을 말한다. 뇌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우리의 사고작용을 담당하는 대뇌의 작용이 멈추는 것으로서의 대뇌사, 그리고 혈액순환과 호흡 및 무의식적 반응을 담당하는 뇌간의 죽음으로서의 뇌간사와 이 양자의 죽음을 포함하는 전뇌사(whole brain death)이다.

이에 있어 뇌간의 죽음은 대뇌의 죽음에 이어지는바, 뇌간사는 전뇌사로 귀결되는 것으로 보통 여기고 있다. 대뇌가 죽었다 하더라도 인간의 심장과 폐는 제 기능을 할 수 있는바, 대뇌사를 죽음으로 정의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대뇌가 죽어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식물인간이라 부른다. 이에 있어 대뇌사를 법률로 인정하는 나라는 없다.

하지만 인간의 의식의 기능을 통할하는 대뇌의 기능과 함께 심폐를 움직이게 하는 뇌간의 작용도 멈춘 사람들은, 당분간 심폐가 기능한다고 하더라도 죽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다. 보통의 경우 모든 뇌가 죽었을 때에는, 인공적인 생명연장의 보조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시, 어느 정도 생명을 연장할 가능성은 있으나,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죽음의 시점을 정하는 문제는 장기이식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된다. 장기이식을 위해서는 그 죽음의 시점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법률은 장기이식을 위한 뇌사는 인정하면서도, 그 이외는 뇌사의 판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다. 장기이식이라는 인도주의적 행동을 위해, 전문의 3명을 포함한 7-10인의 위원회가 장기를 제공하려는 사람의 뇌사를 판정하게 하여야 한다고 그 법률은 말한다.

그러나 인공적 연명술의 발전이 죽음을 정하는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인공호흡 등으로 심폐를 강제로 기능하게 하는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죽음에 대한 정의를 복잡하게 한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심폐의 기능까지도 자동적으로 정지하지만, 인공적인 보조기구들에 의해 심폐의 기능을 상당 기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에 심폐의 기능에 의거한 죽음의 정의는 오히려 죽음을 모호하게 한다.

뇌사를 인정할 경우, 생명의 연장을 위한 인공적 기구들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이제까지의 법에서는 뇌사자에 부착한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근거를 주지 못하였다. 이러한 인공적 생명연장 기구들의 제거는 간접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a)의 문제로서 논란이 많이 되었던 사안이다. 말기 환자에게 약물 등을 투여하여, 그의 생명을 종식시키는 것이 적극적 안락사라면, 그러한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하여 자연의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은 소극적 안락사로 구분된다.

우리의 현행법에 있어, 장기를 제공하려는 경우엔 뇌사가 인정되어, 간접적 안락사의 행위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장기이식의 사안이 아닌 경우엔 뇌사로서 판정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곧 우리 법률의 죽음에 대한 판정은 이중적 잣대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뇌사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환자의 가족은 많은 의료비를 분담하여야 하며, 아울러 뇌사자 자신도 강제의 호흡을 하며 여러 보조장치를 달고 죽어가야 한다.

그러면 이러한 뇌사를 인정하는 것에서 야기되는 문제는 무엇인가? 먼저는 뇌사의 판정하고 간접적 안락사를 시키는 주체에 대한 물음이다.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측이 일방적으로 의사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의 저항요인이 있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의사가 환자의 가족과 의논 없이 일방적으로 환자의 생명연장 장치를 제거한다는 것엔

문제가 있다. 물론 뇌사의 판정은 일반인이 쉽게 할 수 없는 것으로, 상당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된다. 그러나 인공호흡기의 제거는 뇌사의 판정과 또 다른 문제이다.

뇌사가 판명된 후에라도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는 환자나 그의 가족의 몫이어야지, 의사가 정할 문제는 아닐 것이다. 문제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충분한 대화의 분위기가 보장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는데 있다. 대화가 없는 권위주의적인 병실의 분위기 속에서 뇌사자에 대한 판정과 조치를 내리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환자의 가족들은 뇌사의 판정이 신중히 되었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자신들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될 수 있는 분위기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뇌가 죽은 것에 대한 판정 자체의 정확성에 대한 의학계에서의 논란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인바, 뇌가 충분히 죽었다는 것에 대한 바른 시험적 결론이 내려진 상태에서, 뇌사의 판정을 해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정황들에서 검토하여 볼 때, 아직 우리나라의 의료 윤리적 수준에서는 뇌사를 인정하는 것이 시기 상조라 여겨진다. 뇌사의 판정을 위해선, 대다수의 의료기관이 신중한 판정을 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의료기관에 죽음의 결정권을 맡기는 것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거부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들을 어느 정도 의료비가 들더라도,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위해 최후까지 노력하여 줄 것을 대부분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생명에 대한 경외심의 사회적 분위기가 더욱 무르익고, 의사의 환자에 대한 사랑이 지금보다 더 증진될 때, 뇌사의 법률적 인정이 가능한 듯싶다.

▶ 세계변화 ◀ 중국어 열풍

기업, 수강자 넘쳐 강좌증설

직장인들 사이에서 중국어가 영어를 제치고 '제1 외국어' 자리를 넘보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외국어 교육 비즈니스 실무과정에 올 해 초 중국어 3강좌를 개설했으나, 최근 수강 희망자들이 넘쳐 10개 반으로 늘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과거 수강생 분포는 영어→일어→중국어 순이었지만 4·4분기부터는 영어와 중국어가 비슷한 수준이 됐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서울과 용인연수소와는 별도로 기흥과 수원 공장에까지 중국어 과정을 개설했다.

LG전자는 직원들의 중국어학습을 돕기 위해 9월부터 인터넷 온라인 연수원(러닝넷 차이나)을 운영중인데, 현재 임원급만 2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SK도 등급별 4개 반으로 운영되던 중국어 강좌를 10개 반으로 늘렸으며, 본사의 경우 약 30% 직원이 중국어를 배우는 상태다. SK는 수강자들을 대상으로 중국어 능력시험(HSK)을 실시, 성적우수자에겐 인사과에서 가산점을 주고 있다.

기업 관계자는 "일어는 확실히 제쳤으며 지금 추세라면 곧 중국어가 영어를 누르고 사실상의 제1 외국어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사성어

각주구검(刻舟求劍) // 시세의 변천도 모르고 낡은 생각만 고집하며 이를 고치지 않는 어리석고 미련함을 비유하는 말.

戰國時代, 楚나라의 한 젊은이가 揚子江을 건너기 위해 배를 탔다. 배가 강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그만 실수하여 손에 들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아뿔사! 이를 어쩐다."

젊은이는 허둥지둥 허리춤에서 단검을 빼 들고 칼을 떨어뜨린 그 뱃전에다 표시를 하였다. 이윽고 배가 건너편 나루터에 닿자 그는 곧 옷을 벗어 던지고 표시를 한 그 뱃전 밑의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칼이 그 밑에 있을 리가 없었다.

詩

"한 영혼을 기다리며"

권사 김종숙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가을의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며
힘든 삶을 견뎌 내듯 .
한 영혼을 너무도 사랑하기에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립니다.

주님 안에 영원한 사랑이 있기에
병어리된 모습
커머거리와
장님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루가 천년같고 천년이 하루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눈물로 간구합니다.

인간이기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상처로 인하여 찢어지는 아픔 속에서도
나 그대 사랑하기에
거룩같은 모습으로 기다립니다.

인고의 세월 지나
둘이 나란히 앉아 행복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그리며
이렇게 미소를 지으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뉘아 놓은 천국 길에
당신도 동행할 그 날을 바라보며
나 이렇게 기다립니다.

12월의 교회력

2		9		16		23		30	
	제네바 신앙문답서 출판(1545) 기독교신보 창간(1946)		서울 YMCA 창설(1922)				극동방송국 개국(1956)		
3		10		17		24			
	복음주의 문서선교협의회 창립(1790)		세계인권선언 공포(1948)		새번역 신앙성경 출간(1967)				군종교육대 창설(1959)
4		11		18		25			
	기독교 조선감리회 만주선교회 조직(1931)								기독교세계 발간(1964)
5		12		19		26			
	한국복음주의 동맹선교회 재단법인 등록(1961)		트렌트회의 개최(1545)		양삼주목사 중심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한인교회 설립(1906)		제6회 황해노회에서 흡연자 장로장립 불허가결(1914)		
6		13		20		27			
			미국 오순절교회 선교시작(1926) 신사참배 거부 결의(1935)				기독교 교육연맹 창립(1933)		
7		14		21		28			
	기독교신보 창간(1915) 개역본 성경전서 발간(1934)				이승만 대통령 특명으로 군목제도 실시(1950)				
1		8		15		22		29	
	신학월보 창간(1900)		북한교회 기독교 자유당 사건(1947)		빌리그레이엄 목사 부산, 서울 전도대회(1962) 기독교방송국(HLKY) 개국(1954)		한국 최초의 경찰교회 창립(1969)		일제에 의해 성결교 강제 해산(1943)

아빠와 자주 목욕한 아이

英, 심리학교수 성장과정 조사

갓난아기 때 아버지가 자주 목욕을 시킨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 대인관계 등 사회 적응력이 훨씬 뛰어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영국 센트럴 런던 대학의 심리학 교수 하워드 스틸(Howard Steele) 박사는 유아기에 아빠와 규칙적으로 목욕을 하지 않은 아이들 가운데 30%가 나중에 '심각한 교우 관계상의 문제'를 겪는 반면, 1주일에 3~4회 아빠와 목욕한 아이들은 이런 경우가 3%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영국 BBC방송이 8일 보도했다.

스틸 박사는 이 같은 사실은 100쌍의 부모들이 14년 전에 낳은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생후 1년·18개월·5년·6년·11년에 각각 조사평가하고, 마지막 해에 이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아빠와 목욕 경험이 적은 아이들 중 상당수가 친한 친구가 없으며 다른 아이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목욕을 통한 신체적 접촉이 이처럼 오랫동안 영향을 끼치는 이유 중 하나는 아빠와의 신체접촉과 따뜻한 목욕물이 결합할 때 아이의 체내에서 분비되는 '옥시토신(oxytocin)'이라는 호르몬 때문이라고 스틸 박사는 밝혔다. 그는 "아이는 아빠와 교감하면서 엄마라는 세계를 넘어 사회로 접어든다"며 "(직장생활로) 바쁜 아버지들엔 목욕이 가장 좋은 기회"라고 주장했다. 스틸 박사는 유아기가 지난 큰 아이들과도 최소한 1주일에 한 번은 물 속에 함께 앉아 아이의 눈을 쳐다보며 미소를 띠고 얘기를 나누라고 조언했다.

청소년우울증, 3명중 1명꼴...자살충동도 25% 달해

우리나라 청소년 4명 중 1명이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으며 실 제 남학생 3.3%, 여학생 7.3%가 자살시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청소년의 3분의 1이상이 우울증상을 보이고 이중 20%는 정신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 조맹제 교수팀(가천의대 신경정신과 조성진 교수)이 부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7만1102명 중 2203명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실태조사를 조사한 결과 남학생의 23.5%, 여학생 28.1%가 최근 2주 동안 자살충동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99년 12월 한달 동안 실시한 것으로 한 도시 거주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실태를 표본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조 교수팀은 이번 조사결과를 최근 미국에서 열린 제154차 미국정신의학 회에서 발표했다.

조사대상 학생 중 남학생 34.3%, 여학생 47.5%이 우울증상이 있었으며 이중 절반은(남학생 17.4%, 여학생 20.6%) 정신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증세가 심각했다.

최근 2주 동안 자살의도를 가졌던 남학생은 23.5%, 여학생은 28.1%였으며 실제로 자살시도를 해 본 학생들도 남학생 3.3%, 여학생은 7.3%나 됐다.

조 교수는 특이할 점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전체학생의 우울증 비율은 비슷하지만 세계적으로 여학생의 우울증 비율이 2배 정도 높은데 비해 우리나라는 남학생의 비율이 높았다면서 이는 남학생이 학업성적이나 대학 진학에 대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우울증의 원인으로는 학업성적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때 우울증상의 위험이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대학 입시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이들의 장래진로에 대한 지도, 직업 선택의 다양한 기회 제공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의 아버지께 -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구요!

슬픈 마음으로 울먹이다가도 전혀 믿어지지가 않네요.

제 마음 속에 이렇게 뚜렷이 살아 계신데!

특하면 화 잘 내시던 얼굴은 잘 떠오르지 않고 빙그레 웃으시는 얼굴만이 제 곁에 살아 계시네요.

이발하고 옷단장한 깨끗한 모습으로 금방 들어오실 것 같이 그 모습 항상 살아 계십니다.

웃고 계시는 모습이, 어깨가 약간 굽은 듯이 걸어오시는 모습이 너무나 선하답니다.

.....조금만 더 살아계시지!

혈육의 정으로 많은 아픔과 슬픔이 남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에도 한마디 말도 없이 이렇게 서운하고 허무하게 가실 수 있단 말인가요?

땅속에 누워 계신걸 보고 온 후에도 돌아가셨다고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언제고 불쑥 집에 들어 오실 것만 같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가시던 날은 천둥 번개도 요란 했습니다.

볼품없는 옷이라고 바꿔 입으라고 했던 겹저고리와 신고 계시던 구두가 대문 앞에 내 놓은 상 위에서 비를 맞아 척척히 젖는군요.

그제 저를 만났을 때만해도

"이제 연세도 드셨으니 서서히 '죽음'준비도 하셔야지요. 교회든 성당이든 나가시면서 여생 잘 사는 방법도 생각하면 좋겠어요"하고 당부 드리는 말에

"그런 거 나 싫다"고 잘라 말씀하셨지만 저는 제 마음의 결정으로 성당 묘지에 안치해 드리고 싶어, 외지의 성당이긴 하지만 신부님을 찾아뵙고 상의 드렸으나 생전에 영세 받지 않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를 그 휘휘한 산중에 홀로 두고 오는 이 딸의 가슴은 칼로 쏘시는 듯 아팠습니다.

휘휘한 비 오는 산중을 생각하며 이 애린 마음 떨쳐 버릴 수가 없어요.

아버지 계시는 집(묘) 위로 당신의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 당신의 엄마, 아빠 옆에 계시니 막둥 아들 많이 위로하고 얼싸안아 주실 것이니 조금은 안도가 되는군요.

아버지,

제가 살아 있는 동안 아버지와 생전에 다하지 못한 대화 많이 나누고 싶어요.

지금까지의 대화는 생각이 다르고 이질감도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정답고 정겨운 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버지, 저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평안하세요.

-내 아버지의 죽음을, 가슴애이는 마음으로 많이 생각하면서-

◎ 12월

1. 신앙서적 / “습관적 신앙에서 벗어나라” '에이든 토저' 지음
2. 제직세미나 / 일시 : 12월 20일 오전 11시, 오후 7시 30분
주제 : 제직의 자세와 사명
3. 지역 거리청소 / 일시 : 12월 11일 오전 10:30 범위 : 채운리 일대
4. 성탄절 이브 축하제 / 일시 : 12월 24일(월) 오후 7시
5. 새벽송 / 일시 : 12월 25일 새벽 1시~3시
* 새벽송 대원은 교회에 24일 밤 12시까지 모임
6. 성탄절 축하예배 / 일시 : 12월 25일(화), 오전 11시
7. 교회시상식 / 일시 : 12월 30일 오전 11시
8. 교회학교 졸업예배 / 일시 : 12월 30일 오후 7:30
*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9. 송구영신예배 / 일시 : 12월 31일 오후 11:30
10. 신년 축복안수식 / 일시 : 2002년 1월 1일 오전 1시
* 기도제목과 예물을 준비

지역소식

한보철강 AK캐피탈에 낙찰

한보철강을 인수할 낙찰 예정자로 AK캐피탈이 ‘조건부’ 선정됐다.

자산관리공사는 한보철강 국제입찰에 참여한 AK캐피탈과 CHB스틸을 심사한 결과 AK캐피탈을 조건부 낙찰 예정자로 선정해 채권단 운영위원회에 상정했다고 4일 밝혔다.

1997년 1월 부도가 나 외환위기의 ‘도화선’이 됐던 한보철강은 이번 매각이 성사될 경우 4년10개월만에 회생의 계기를 맞게 된다.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이날 “입찰에 참여한 2개사 모두 평가기준을 전부 만족시키지는 못했고 제안서에서 자금조달 능력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두 업체의 제안서 중 AK캐피탈의 제안서가 CHB스틸보다 현실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산관리공사는 ▲매수가격은 자산실사 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지만 입찰가격의 상하 5% 이내에서만 조정 가능하고 ▲본계약 협상중 매도자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데도 계약체결을 하지 않으면 낙찰자는 계약보증금(1천만달러)을 포기하며 ▲매각은 자산매각 방식으로 하되 자산가치 등에 관해 매도자가 어떤 진술이나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3가지 조건을 달았다.

공사 관계자는 “AK캐피탈은 6일까지 조건의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수락할 때에는 채권단운영위원회의 서면 결의와 법원 허가(8일)를 거쳐 이 회사를 낙찰자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조건을 거부하면 자동 유찰된다”고 말했다.

AK캐피탈은 지난해 미국 네이버스 컨소시엄에 참여, 한보철강 인수를 추진했던 연합철강 권철현 전 대표의 아들인 중후산업 권호성 회장이 설립한 서류상 회사(네덜란드 국적)이다.

권회장은 네이버스 컨소시엄을 통해 한보철강 인수를 시도, 지난해 3월8일 본계약(매각대금 4억8천만달러)까지 체결했다가 컨소시엄 내부의 견해 차이로 지난해 10월 인수를 포기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입찰조건은 과거 네이버스 컨소시엄과 비슷하다”면서 “AK캐피탈이 자산관리 공사가 수정, 제시한 조건을 수용할지는 현재로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목사
1. 예배 - 에스미션 사무실 개설감사예배 축하 / 11월 10일 2. 타교회 목회탐방 - 11월 22~23일, 옥포은혜교회 3. 결혼 주례 - 이재주 군 (최정희 권사 차남) / 12월 1일 4. 목양회 모임 - 12월 3일, 서천순복음교회 5. 기업예배 / 주복카(12월 8일) 6. 심방 - 김은희 첫돌 감사예배 12월 8일 정오 7. 선교 Meeting - 12월 13일

교인
* 이사 - 정정희 권찰 / 당진읍 대덕리 * 백일 - 한예성 / 11월 17일 백장미 / 12월 4일 * 첫돌 - 김은희 / 12월 6일 * 교인등록 - 김장식 청년 / 읍내리 강수진 청년 / 읍내리 홍기석 청년 / 시곡리 한동익 집사 / 무수리 인청자 성도 / 교동리 최명신 성도 / 채운리 조상길 성도 / 읍내리 * 혼인 - 최정희 권사, 둘째 아들(이재주) * 군 입대 - 박승철 선생, 경기도 연천 훈련 마치고 자대배치 받음 * 유학 - 최세연 청년 / 미국, 전자우편(lemon4575@hanmir.net)

교회
* 월악산 등산대회 - 일시 : 11월 12일 인원 : 20명 경유 : 능암온천 목욕 * 김장 - 일시 : 11월 24~26일 * 김장 지원 - 넘치는 교회, 더불어 사는 집 * 각 기관 정기총회 - 임원선출 * 영화상영 - 마대복음(11/28 오전 11시), 미션(11/28 오후 8시)

	대상	요일	모임	시간	비고
예배	장년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예정
			2부 예배	오전 11시	
		수요	저녁 예배	오후 7:00(11월~3월) 오후 8:00(4월~10월)	
			저녁 예배		
			아침 예배	오전 11시	
	주교	금요	구역 예배	각 가정에서	
		주일	오전 예배	오전 9시	
	학생	토요	성경공부	오후 5시	문화활동 있음
			정기 예배	오후 5시	
		창년	토요	정기 예배	오후 7시
기도	장년	금요	철야기도회	밤 9시	
		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5시	
교육	장년	주일	초신자양육	오후 1시	2회(사무실)
		주일	새신자훈련	오후 1시	1회(사무실)
		화요	평신도훈련	오후 8시	조직신학
		목요	평신도훈련	오전 11시	
		화요	구역장공과	오전 6시	
		화요	제자훈련(초급)	오후 9시	
		목요	제자훈련(중급)	오전 9:30	
			제자훈련(고급)	오전 11시	
		주중	일대일양육	정한시간	가정, 직장
		목요	영적성장세미나	오전 11시	격월
모임	성가	주일	연습	오전 10시	오후 12:30
		토요	연습	오후 5시, 8시	
활동	율동선교단	수요	1기(레마)	오전 10시	연습
			2기(샬롬)	오후 1시	
		토요	3기(셀라)	오후 5시	
	찬양선교단		연습	매주 화, 목	오후 7시
	컴퓨터	월요	컴퓨터교육 및 작업	오후 5시	컴퓨터팀
		화~토	컴퓨터교육	오전 10시~오후 9시	PC방 운영 교육생
	기도팀	월~토	1시팀	오후 1시	개인기도 중보기도 교회기도
			3시팀	오후 3시	
			9시팀	오후 9시	
	문서	월요	문서발간위원회	오전 11시	순복음Life지
		월요	행정팀	오전 10시	주보, 엽서 등

◆ 「순복음 Life」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동과 사명으로 참여해 주실 분은 연락바랍니다.

☎ 표지 1면을 참고 은행계좌번호 481076-56-044087(농협) 예금주-김미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다윗의 친구이며, 길보아 전투에서 그 아비 사울과 함께 전사했던 자?
(삼상 31:1~2)
3. 예루살렘에서 약 11km 떨어진 촌락, 이곳으로 가는 길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음(눅 24:13~31)
5.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000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셨음(마 3:16).
7.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00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요3서 1:2).
8. 소선지서를 쓴 열두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며 고향이 남유다의 엘고스인 그는 누구?(나 1:1)
9. 나훔의 아들이며, 아브라함의 아버지는?(창 11:24~27)
10. 재능이 없음, 혹은 능력이 없음.
11. 오직 000 유대인이 유대인이며(롬 3:28~29)
13. 사도바울의 출생지이며, 소아시아의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도시 이름
(행 22:3).
15.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두 번째로 내린 재앙(출 8:1~15).
16. 바벨론의 부로닥발라단 왕의 아버지 이름(왕하 20:12).

<세로 열쇠>

- 1) 세레 요한이 광야에 나가 회개를 외친 후에 세례를 베풀어 주었던 장소(마 3장).
- 2) 꼭 필요할 때 알맞게 내리는 고마운 비를 말할 때 쓰는 말(시 65:10).
- 4) 야곱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던 도중 하나님의 사자들과 만났던 장소(창 32:12).
- 6) 여호수아가 보낸 두 명의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 준 여인의 직업(수 2:1~7).
- 9) 바울의 동역자였다가 후에는 '이 셋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간 사람(딤후 4:10).
- 10)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의 상징(창 9:8~17).
- 12) 갓난아이를 뜻함. 혹은 성경에서 갓난아이와 같은 철부지 내지 무능한 지도자를 의미하기도 함(사 3:4).
- 14) 유다 자손 훌의 아들이며, 후에 기랴여아림 족속의 조상이 된 사람(대상 2장).

♣ 누구든지 정답을 작성하여 9월 23일까지 제출하면 추첨하여 시상함.

♣ 1. 전자우편 : hagape@netsgo.com (교회), kmjagape@borahome.net (위원장)

2. 일반우편 : 충남 당진군 당진읍 채운리 162-1 (우) 343-800 순복음중앙교회 문서발간위원회 앞

☎ 제9호 당첨자 시상 - 1등 : 현덕규 2등 : 송미정

▲ 문서발간위원회 ▲

위원장 : 김미진 집사
서 기 : 이종희 성도
회 계 : 구옥순 성도
위 원 : 박순남 집사
손현숙 권찰
윤희자 전도사
이영주 성도
편 집 : 한승권 목사
도우미 : 김진숙 선생

▶ 교회를 찾아오시는 길 ◀

